

계간 차 201704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
CONTENTS

표지이야기

허달용 작, 월야관매2, 한지에 수묵 채색, 53×64cm, 2015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졸업, 개인전 장덕도서관 기획초대전(2014, 광주), 歲寒(歲時)(2013, 광주), 대동갤러리초대전(2012, 광주), 갤러리 생각상자 기획초대전(2011, 광주), 민주공원초대전(2010, 부산), 공화랑초대전(2010, 서울) 등 다수. 단체전 오월전 최면-의도된 상황(2013, 광주), 무유등등-광주시립미술관 갤러리GMA 개관기념전(2012, 서울), 살 속의 단상(斷想)전(2012, 광주), 오월의 詩와 노래(2012, 광주), 봄의 교향악(2012, 광주) 등 다수. 현재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 전국민족미술인협회 회원, 연진회 회원, 광주시립미술관 운영 자문위원.



	여는 시 길을 돌다	임원식
2	'창'을 열며 도시 건축과 사유하는 삶	박선정
3	특집기획_ 문화도시 광주, 차기 정부의 과제 조성사업과 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 문화분권과 문화민주주의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 방안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지역문화관광과의 연계 방향	천득염 김기곤 박강배 송진희 안태기
14	문화인 탐구생활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 - 김향득 다큐사진작가	편집부
16	문화진단 지역문화진흥법의 성과와 과제 광주폴리(Gwangjufolly) 1, 2차와 3차, 그리고	서순복 류영국
22	문화현장 '세월'에서 다시 '오월'로 고려인 마을 방문의 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을 아십니까 광주를 가장 광주답게 일구어 온 사직동	김선출 이천영 임재성 구용기
30	문화특특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 CU Again 7만2천 프로젝트 새봄을 축하합니다 썩쓸한 우리시대의 문화를 생각하며 지역 인력 대응 설계 지금 하지 않으면	김정희 강동완 서연정 허달용 전고필
40	재단·회원 소식·함께하는 사람들	편집부
48	편집후기	

'창'을 열며

도시의 건축과 사유하는 삶

박선정_ 남구관광청 단장, 재단 운영위원장



봄꽃 향기에 취해 도시의 매력을 찾아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 어가고 있다. 그들은 아름답고 예쁜 공간을 찾는다. 이른바 도시의 산책자라 칭할 만하다. 근대역사문화마을 양림동이나 매력적인 카페가 밀집된 동명동 골목을 보라. 카메라를 목에 걸고 셀카봉을 든 탐방객들을 만날 수 있다. 그들은 사진 잘 찍히는 포토존을 금방 알아본다.

그러나 안목 높은 고수들은 차원이 다르다. 좀 더 인간적인 공간, 좀 더 자연적인 공간, 좀 더 시(詩)적인 공간을 지향한다. 이들 이야말로 진정한 도시의 산책자다. 이들은 건축을 보는 눈이 다르다. 건축을 목적으로 보지 않고 사고(思考)의 수단으로 본다. 건축적 사고가 사유의 방식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유독 사유와 생각을 강조했던 사람이 있다. 건축가이자 화가이며 사상가였던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다. 그는 유명한 어록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고 말며 전해지는 것은 사유뿐이다”란 말을 남겼다. 건축가는 생각을 남기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술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앞지르는 작품들을 남긴 것이다. 오늘날 현대식 아파트의 모태인 유니테 다비타시옹을 지었으며 도시계획도 그가 만든 방식이다. 그의 건축은 외형적으로는 기능적이고 규격화된 듯 보이지만 장식을 배제한 순수한 절제 속에 시적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일관된 건축의 본질은 정신과 진실의 문제였다.

그는 4평짜리 작은 통나무집에서 삶을 마무리했는데 전 생애에 걸친 사유의 결과물인 작품들, 17개의 건축물을 유네스코는 작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과거의 건축방식을 뛰어넘어 혁명

적인 건축 원칙과 기술을 발명한 그에게 유네스코가 결정한 화답이었다.

우리가 사유하는 삶을 추구해야만 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사유하지 않은 삶의 몰락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상징적 인물이 바로 전 대통령 박근혜다. 현재의 선고에 따라 마침내 파면당한 그녀를 보라. 그녀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였던 헌법을 수호하지 않고 오랜 지인인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유린했다.

특검수사에서 폭로된 그녀의 모습은 무능과 어리석음의 극치였다.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뒷받침할 사유의 확장을 외면하고 오히려 퇴행적 삶을 살았던 그녀는 현재 선고 직전까지도 망상에 집착했다. 기각 판정을 기대하고 다시 대통령 권좌에 오를 미망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사유하지 않은 자는 끝내 반성과 참회마저 외면했다.

도시건축을 사유의 수단으로, 또는 성찰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대로변의 고층건물이나 화려한 파사드를 벗어나게 된다. 숨어있는 골목길에서 작지만 소담스런 공간을 발견하고 그 속에 아름다움이 보석처럼 박혀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 곳에 가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행복으로 충만한 얼굴을 하고 어슬렁거리는 사람들, 도시의 산책자다.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건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다. 본질이다. ♪



특집기획

문화도시 광주, 차기 정부의 과제

지난 10년 동안 문화도시 광주는 짙은 안개에 휩싸였다. 문화도시 광주의 실현을 위해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는다. 조성사업과 문화전당 정상화를 토대로 문화도시 광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담론이 필요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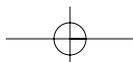
조성사업과 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 천득염_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

문화분권과 문화민주주의 김기곤_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박강배_ 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 방안 송진희_ 호남대 예술대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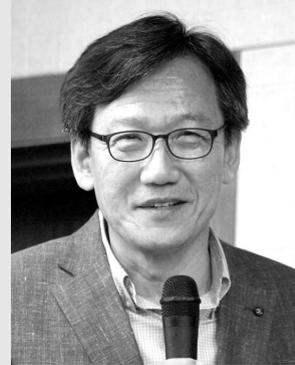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지역문화관광과의 연계 방향 안태기_ 광주대 호텔경영학부 교수



특집기획

조성사업과 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

천득열_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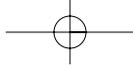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명제가 광주에 던져진지 벌써 15년이 지났고, 또한 전당이 완공된지도 1년여가 되었다. 호남지역 거점도시 예향 광주, 발전에서 소외되어 인적 물적자원이 부족하여 거대한 국책사업을 운용하기에 부족한 광주에 갑자기 거대한 과제가 주어졌다. 그 후 전당은 아시아적 가치를 구현하는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고 創, 製作을 통한 문화발전소나 복합문화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또한 문화허브로서 아시아 각국을 견인하는 문화리더가 되기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시작부터 거대한 랜드마크 기대, 문화전당 설계당선작 시비, 주차장 부족, 정부의 소극적 관심, 구도청건물의 존치, 콘텐츠의 미비, 정부예산의 삭감과 집행지연, 특별법과 법인화, 기대에 못 미치는 개관이후의 상황 등등 끊임없는 논란과 갈등이 노정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간 많은 광주시민들은 문화전당이 완성되면 정부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이를 통해 먹고 사는 문화재화가 생산되며 문화시민으로서 자긍이 넘치는 곳이 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중심시설인 문화전당 뿐만 아니라 7대문화지구가 연동되면 광주전체가 더욱 문화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 소망하였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정권이 두 번 바뀌었고 중앙정부와 광주시, 전문가와 시민대중 사이에서 인식의 다름, 정책집행의 갈등 중에도 광주는 하나씩 정리해 가는 현명함과 인내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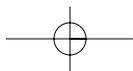
그러나 전당이 완공되고 난 근자에는 오월 현장 보존, 구도심의 활력회복, 시민의 자존감 유지, 지역 경제 활성화, 전당운영의 긍정적 청사진 제시 등이 부족하다는 사실들을 접하면서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광주를 살리고자 한 원래의 국가정책 의도와는 달리 ‘돈 먹는 하마’, ‘예고된 재앙’이라는 광주인의 자존을 짓밟는 비아냥을 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에 ‘아시아문화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으니 국가사업이 아닌 지역의 사업으로 전락하고 국책사업이 아닌 여러 문화사업 중의 하나로 의미가 축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당을 총괄하는 운영 시스템이 원래의 정체성을 버리며 바뀌었고 수장마저도 아직 선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허탈하기까지 하다.

지난 정부의 부끄러움을 접고 이제 곧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겠으니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준비하고 대응하는 광주의 지혜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수준 높은 운영이 요구된다. 국제적인 교류와 생산적인 내용이 있고 원래 추구했던 철학이 지속적으로 지켜졌으면 좋겠다. 행정가 몇몇이 흔들거나 정부의 의지가 너무 쉽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전체적인 방향은 특별법에 근거한 종합계획의 틀을 유지하되 국가와 지역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설정하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본주의' '아시아적 가치' '문화융성' 등의 사유가 상존해야 한다.
- 그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과 특별법개정안, 박혜자의원 입법이 있었다. 향후 전당의 운영을 가름하는 큰 틀거리를 어찌하여야 할 것인가를 다시 좀 더 현실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법인화를 적극 수용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방안도 고민해보아야 한다.
- 무엇보다도 수준 높은 운영이 요구된다. 국제적인 교류와 생산적인 내용이 있고 원래 추구했던 철학이 지속적으로 지켜졌으면 좋겠다. 행정가 몇몇이 흔들거나 정부의 의지가 너무 쉽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당 운영을 총괄하는 전문가를 서둘러 모시고 그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
- 전당의 5개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창작과 연구, 아카이빙, 전시와 공연, 교육, 레지던시, 홍보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 통합관리 하는 기구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 전당과 7대문화지구의 유기적 연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간의 모든 계획에는 도시의 문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핵심문화거점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고한 기반을 마련함을 목표로 문화도시의 외연을 넓히는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전당에서 흡인하고 확산하는 역동성이 필요하다.
- 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의 허브로서 자리함과 아울러 공허한 광주도심의 재생과 활성화를 견인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시장의 논리도 있겠지만 의도된 기획은 큰 단조를 마련하기도 한다. 전당주변에 또 다른 특색 있는 소 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 문화관련 타 기관, 혹은 타 지역과의 협력 및 공유가 절실히 필요하다. 국가기관이 주도하거나 일정지역에 함몰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너무 어렵거나 특정집단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 된다. 특히 근자에 비엔날레를 전당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옳은 판단이라 생각된다.
- 아시아문화전당과 같은 복합문화시설이 도심지에 들어서게 되는 경우, 더구나 그 도시의 역사적 공간에 들어서게 되는 경우 이 시설은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소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도시와 시민들 사이의 매개적 역할을 수행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 시민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의사결정을 찾아가는 '문화협치' 정신이 어디엔가 제도적으로 담겨 있어야 한다. 이제는 시민들의 의식이나 식견이 이미 높아져 있다. 따라서 모두가 함께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특집기획

문화분권과 문화민주주의

김기곤_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촛불혁명’의 행렬은 삶의 가치를 되문고, 새롭게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구도’의 길과 같았다. 그 진지한 열망의 파장 속에서 세워질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바로 ‘문화적 삶의 재편’이다. ‘문화분권’과 ‘문화민주주의’는 이러한 문제를 푸는 원리이자 실행 과정이다.

집중에서 분산으로, 문화주권을 향한 문화자치의 길

경제와 권력의 중앙집중을 막고,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지방의 자율권을 키워가자는 지방분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2년 본격화된 지방분권운동은 행정, 재정, 입법 등에 집중되다가 점차 문화분권이라는 이슈로 확산되었다. 2012년 이후에는 지역의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분권이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지방으로의 문화재정의 분산과 문화행정 권한의 이양, 그리고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분권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문화가 경제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가는 상황만 깊어졌다.

문화민주주의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영역에서 민주주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문화활동을 통해 문화주체로 설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제도와 문화환경을 구축하는 것,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적 권리를 확대하는 것을 중시한다. 문화민주주의는 전문적인 예술 체험의 기회를 넓히고자 했던 ‘문화민주화’의 한계를 극복하며 그 의미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갈수록 자치와 자율, 지역 간 공존과 협력,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이 강조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삶의 지형 변화 속에서 문화분권과 문화민주주의는 지역문화자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자, 문화가 실현해야 할 가치이다. 시급한 것은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 그리고 지역의 자율적 결정과 책임감 있는 실행이다. ‘문화도시 광주’의 내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이 두 가지는 더욱 절실하다. 문화와 시민의 삶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여전하고, 참여와 평등에 입각한 문화향유는 항상 구호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갈수록 자치와 자율, 지역 간 공존과 협력,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이 강조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삶의 지형 변화 속에서 문화분권과 문화민주주의는 지역문화자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자, 문화가 실현해야 할 가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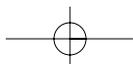
자율과 책임의 문화협치로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확대하자

첫째, 문화분권과 문화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문화분권과 문화민주주의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차원에서는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고양, 문화적 시민주체의 형성 등의 관점에서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체계화해야 한다.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문화민주주의를 규정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가와 지역에서 문화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문화예술정책의 자율성을 중시해야 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오히려 '블랙리스트'의 집행 기관으로 전락했던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단위의 문화기구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운영되고, 지역 균형적 관점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다수의 지역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활동의 자유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비판과 개입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 문화는 자유로운 사고와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가치로 전환될 수 있다.

셋째, 지역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문화재단이 신설 운영되어야 한다. 이들이 지역의 문화역량 증진과 문화진흥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지원의 주요 재원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이 고갈되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지역문화재단도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고, 라이프스타일과 시민 감정의 변화를 반영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지역문화정책의 대행기관으로서 문화민주주의가 사업 구상과 평가의 주요 척도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국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를 잇는 지역문화정책 협치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문화분권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중시하는 수평적 협력관계를 통해 실현된다. 정책사안에 따라 현실적이고 실행력 있는 분권 협약의 맺을 필요가 있다. 지역의 공공문화기관-민간문화단체-문화행정이 시민참여를 추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적 시민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시민으로부터 기획되는 다양한 문화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문화정책 결정에 시민들의 권한이 확대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집기획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박강배_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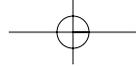
1973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018년 고갈된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고자 마련된 기금이 바닥난다는 것이다. 대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관련 부처와 협의도 하고 있다고 한다.

새로운 문진기금 마련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겠지만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방안이 예산에 편제되도록 비중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문진기금 예산편제에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을 담당할 지역문화예술 진흥 부분의 촘촘한 편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지역문화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는 갈수록 나빠지는 느낌이다.

또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생활문화센터 조성, 문화도시 지정 등 지역문화 진흥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 간 문화격차와 문화예술 활동의 수도권 편중 현상은 여전하다. 지역에서는 대형 축제와 문화콘텐츠 제작으로 떠들썩하지만 정작 기초예술 생태계는 위협받고 있다. 대학의 문화예술학과는 통폐합되고, 지역의 작가는 시장이 형성된 수도권으로 떠나가며, 현장 활동가는 재생산되지 않아 지역의 기초 문화예술이 고사위기에 처했다.

문화생태계는 지역문화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순환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체계인바, 이를 잘 구축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문화예술인들 특히 청년작가들이 지역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살아 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문진기금이나 보조금을 통하여 이루자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현재의 상황을 타계하기 위하여 각 장르별 창작활동에 대한 단순한 기금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데 연극, 문학, 미술, 공연 등 기초예술분야의 자립과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소극적인 창작지원금을 늘이는 제도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바, 예술가 개인 또는 단체의 문제로 돌 것이 아니라 기초예술분야 위기로 인식하고 구조적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장기적 관점으로 예술창작-매개-향유소비의 구조를 체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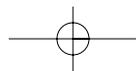
현재의 상황을 타계하기 위하여 각 장르별 창작활동에 대한 단순한 기금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데 연극, 문학, 미술, 공연 등 기초예술분야의 자립과 안착할 수 있는 조건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예술창작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 예술인의 감소와 역외 유출은 지역문화 경쟁력 상실의 주요 요인이며, 지역문화 활성화에 역행하는 신호이다.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예술인이 지역에 착근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예술가들이 지역에 안착하고 정주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등과 같은 예술인 복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청년작가들의 지원제도 진입 장벽을 낮추고, 청년 문화기획자 양성과 문화예술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 소극장 활성화, 동네 예술가 육성, 예술인 복지사각 지대 중간조직(지역예술가의 집) 마련 등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문화 무관심층과 향유소의계층에게 예술의 감수성을 제고하는 생활 속 예술교육을 강화하고, 문화생산과 소비를 장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 국민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자세히 보면 영화관람이 78%인데 반해 무용,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등의 순수예술 관람률은 답보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향유자의 능력과 의지가 함께 결합이 되어야 하는데 순수예술 향유 역시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기지속적인 관점으로 문화예술교육과 순수예술 장르의 발전을 제고해야 하며, 예술 감수성과 체험기회 확대로 잠재관객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이에 광주문화예술교육센터, 청소년 삶디자인센터, 생활문화진흥원 등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이들을 매개할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한편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조직과 전달체계 간 협업이 필요한데, 정책생산과 예산 편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지방정부:문화재단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문화재단의 역할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을 적극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재단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지역대학 등 지역 문화기관·단체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을 정치적 수단이나 도구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정신을 고양하는 가치 있는 활동이며 따라서 존재자체가 의미 있는 행위라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문화 활성화는 문화예술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문화향유와 예술체험이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믿음, 지원조직의 적극적 연계 활동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특집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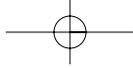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 방안

송진희_ 호남대 예술대학장



21세기에 국내외적으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산업 가운데 하나가 문화콘텐츠 산업일 것이다. 문화콘텐츠란 스토리나 전통문화, 문화예술 등의 문화적인 요소 위에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만들어낸 문화상품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콘텐츠 산업에는 방송,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출판, 게임, 영화, 공연, 광고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들이 있다. 그런데 문화콘텐츠 산업은 전통적인 문화산업과 달리 디지털 기반의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무제한 복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매개가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소위 증강현실과 가상현실(AR/VR), 드론, 5세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등 최첨단 ICT 트렌드가 문화콘텐츠 산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이같은 문화콘텐츠산업에 크게 관심을 갖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인식하여 적극 육성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문화콘텐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나며 발전속도가 매우 빠를 뿐만 아니라 지속발전의 가능성이 높아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자 문화콘텐츠산업이 지역의 전략산업이며, 2004년부터 첨단영상, 음악, 게임, 공예 디자인, 에듀테인먼트 등 5대 전략콘텐츠를 집중 육성 하고 있고 또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이다. 광주는 서울을 제외한 어느 도시에 비해도 문화콘텐츠관련 생태계가 잘 구축된 도시이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콘텐츠산업 관련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인터넷 진흥원 등이 등지를 틀었다. 그리고 광주시의 문화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디자인센터 등 다양한 기관들이 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제작관련 시설로는 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CGI 센터, 송암 첨단실감콘텐츠제작클러스터-창조콘텐츠 제작지원센터,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음악창작소, 콘텐츠산업지원센터, 콘텐츠창업보육센터 등이 있다. 광주처럼 다양한 문화콘텐츠산업 유관기관들이 집적되어 있는 도시도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광주에서는 매년 콘텐츠관련 인력을 대학에서 1,500여 명 배출하고 있고 이밖에도 공공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관련 지원을 위해 문화산업 투자 진흥기구와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을 운영하고 있고 광주광역시에는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투자조합' 등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문화콘텐츠를 위한 글로벌 윈도우로서는 국제 콘텐츠 마켓인 ACE Fair,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세계 웹콘텐츠페스티벌, 광주영화제, 국제포크음악제 등이 있다. 이처럼 광주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기관, 제작시설, 지원제도, 인력양성, 글로벌 윈도우 등 생태계가 잘 조성된 도시이다. 그러나 이처럼 잘 구축된 문화콘텐츠 산업의 인프라스트럭처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문화콘텐츠산업 현주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광주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매우 미미하고,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대부분 이어서 글로벌 또는 전국적인 선도기업이 부재한 상태이다. 지역의 대학에서 문화콘텐츠 분야의 인력을 대거 양성하고 있으나 일자리가 매우 제한적이며,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핵심기술, 전문 인력, 경영, 마케팅, 글로벌 네트워크 등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소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광주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매우 미미하고,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대부분 이어서 글로벌 또는 전국적인 선도기업이 부재한 상태이다. 지역의 대학에서 문화콘텐츠 분야의 인력을 대거 양성하고 있으나 일자리가 매우 제한적이며,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핵심기술, 전문인력, 경영, 마케팅, 글로벌 네트워크 등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광주에서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을 몇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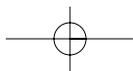
첫째, 기존의 문화콘텐츠 전략산업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5대 콘텐츠 육성사업 등에 대한 정확한 성과평가 및 문제점을 도출하는 일이 선결되어야 한다. 많은 문화콘텐츠 장르를 한꺼번에 육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이를 반영하여 특정 장르를 선택하여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광주와 혁신도시 소재 문화콘텐츠관련 중앙정부 산하기관과 지방정부 그리고 관련 기관들간에 광주문화콘텐츠육성 전략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실속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협력하여 기관들이 윈윈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웹콘텐츠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육성이 필요할 것이다. 2016년 광주는 제1회 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올해는 “ACE Fair”에 통합되어 운영되는데 이 문제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광주가 당장에 방송, 영화, 광고 등 거대자본과 거대 기업 그리고 전문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문화콘텐츠분야를 발전시키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PC나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각광을 받고 있는 웹콘텐츠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웹콘텐츠란 웹기반에서 유통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새롭게 가공된 콘텐츠를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웹드라마, 웹툰 등이 있다. 이 장르는 거대자본이 필요하지 않고 출연진이나 제작자, 작가 등의 제작관련 요소비용이 높지 않고, 소수의 제작인력으로 콘텐츠의 제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통채널이 개방적이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한 분야이다.

넷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서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기여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창조원 등 5개원이 지속발전하고 경제적 성과를 내려면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인구 20만 도 안되는 오스트리아 린츠의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는 아시아문화전당이 벤치마킹 하였던 기관인데, 이 기관의 심장은 기관내부의 R&D 센터인 “Future Lab”이다. 여기에는 양방향전시, 미디어아트, 디자인, VR, 디자이너, 사회과학자, 문화이론가, 빅 데이터 전문가 등 다양한 전공자들이 팀을 이루 서로 영감을 주고받으며, 협업을 통해 혁신의 배터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곳에는 29명의 전문가들이 팀원으로 일하고 있고, 레지던시 프로그램에도 한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전문가 51명이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전당의 창작제작센터도 문화콘텐츠 산업의 혁신센터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아르스 일렉트로니카가 흑자 기관으로 도약한 것은 바로 도시바, 보다폰, 메르체데스 벤츠, NH Hotel 등 다양한 기업들과 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광주는 앞으로 문화에서 지역의 희망을 찾고 문화콘텐츠 산업이 지역의 성장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집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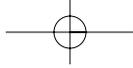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지역문화관광과의 연계 방향



안태기_ 광주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오늘날 문화관광의 흐름은 과거의 집단주의에서 체험 및 교육, 그리고 가족중심의 관광요소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문화관광은 축제 참가, 문화재 및 유적지, 박물관 견학, MICE, 예술, 문화, 여행 등 문화적 동기가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즉 특정지역의 전통문화를 대상으로 한 관광에서 예술, 스포츠, 종교, 산업 활동을 포함하는 다양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광욕구가 할 수 있다.

관광이란 문화를 체험하는 것으로 그 지역의 문화를 보는 것이고 관광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문화를 개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 지방의 문화를 본다는 관광(觀光)의 의미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구성하는 '광의의 문화'를 오감으로 느끼고 체험하며 철저하게 관찰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관광이란 용어는 그 자체로 이미 문화를 전제로 한 말이다. 관광개발은 문화개발과 같이 함께한다고 할 수 있다. 문화관광을 만드는 기본은 가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며 일단 지역에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머물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문화관광을 만든다는 것은 지역의 개성과 매력을 개발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지역의 문화를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에 의한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첫걸음은 지역의 매력을 재발견하고, 발견한 매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다. 문화관광을 만드는 기본은 가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며, 일단 지역에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머물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광주는 남도문화관광의 중심지이며, 국립공원인 무등산을 중심으로 자연생태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유산이 어우러져, 관광자원의 매력성에 있어서도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호남고속철도(KTX), 수서고속철도(SRT)개통 등 접근성에서도 관광객 유치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광주문화관광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차별되고 독특한 마케팅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광주만의 통일성이 필요하다. 또한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과 광주·전남 지역의 관광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문화관광 벨트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관광 상품, 관광인프라 등 관광기반 구축 또한 필요



광주문화관광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차별되고 독특한 마케팅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광주만의 통일성이 필요하다. 또한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과 광주·전남 지역의 관광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문화관광 벨트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관광 상품, 관광인프라 등 관광기반 구축 또한 필요하다.

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광주가 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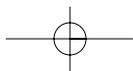
현재 광주는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는 수도권과 광역권 등에 관광시장에서 뒤지고 있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고 보도되고 있다. 물론 사고없이 안전하게 치루었다는 데에는 수긍한다. 하지만 그 많은 시간동안 유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가? 몇 번의 고배와 좌절이 있었는데, 경기만 안전하게 잘 치루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시민들은 그거하려고 지금까지 세금 쓴거냐고 의문을 가질 것이다. 최소한 대회를 개최하면서 광주의 위상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도시를 만들었다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광주가 살길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을 발판으로 문화관광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광주브랜드 이미지와 관광객들의 행동의도, 즉 추천과 재방문에 적극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광주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를 재미와 교육적인 체험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첫째, 찾아가는 홍보 확대이다. 광주광역시 국내·외 홍보 시 참여하여 통합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관광 상품과 관광쇼핑에 대한 강화이다. 총장로 일대 및 인근 상가들에게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캠페인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셋째, 광주만의 킬러콘텐츠가 필요하다. 현재 프린지 페스티벌행사로는 관광객유치는 부족하고 더 질적 이고 매력적인 행사들이 필요하다.

넷째, 광주에 중국유학들을 활용한 지원 확대이다. 예를 들어 중국학생들 가족들을 광주에 초대하는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아주 친근감 있고 기억에 남는 상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입학할 때와 졸업할 때는 찾아올 것이다. 이제 광주가 만들고자 하는 문화도시의 관광브랜드 이미지(brand image)를 새롭게 설정해야 하고 어둡고 소외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낙후된 도시가 아니라 희망찬 도시, 친환경도시, 젊고 활기찬 도시, 새롭고 열정에 가득 찬 도시, 창의적인 문화도시로써 광주의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나가야 하며, 관광객이 원하는 맞춤형 문화관광, 그리고 광주의 정신을 살리는 콘텐츠 개발과 체험관광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문화예술시설이나 관광명소 그리고 지역민들의 자부심과 긍지, 애착심(attachment)을 높이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



문화인 탐구생활_ 김향득 다큐사진작가



구부러진 길 편집부 같은 사람

- 김향득 다큐사진작가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 흙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 이준관 「구부러진 길」 일부

반듯한 길만 갔던 사람들이 권력의 정점에서 무너질 때 구
부러진 길 같은 삶을 사는 김향득 사진 작가가 5번째 개인 사
진전 'again 518-0416' 을 4월14일부터 5월 27일까지 아하

갤러리에서 갖고 있다.

'찍자생존'의 말처럼 요즈음 사진은 현대인들에게 자기존
재의 확인을 위한 필수품처럼 되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사진이 '운명' 처럼 다가와 삶을 바꾼 이가 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한다. 살아남은 자로서의 숙명으로 느껴졌다
는 그. 그를 알려면 광주를 알아야 할 것 같다.

사진작가로 불리기 이전 그에게 붙어있던 다른 이름은 학
생 시민군이었다. 1980년 5월, 고등학교 3학년 10대의 끄트머
리에서 민중항쟁의 마지막 날을 시민군으로 함께했던 그는 살

아남았다. 살아남은 자의 어깨에 걸머진 무거운 짐과 고초를 겪으며 몸과 마음에 새겨진 생채기는 젊은 시절 내내 그를 괴롭혔다.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게 해준 것이 바로 사진이었다. 젊음을 5월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의 삶과 이후 평범한 직장 생활인으로 살아가던 그였지만 언제나 가슴 한쪽이 빈 것처럼 느껴졌다. 그 헛헛한 마음을 달래주던 것들이 자연과 그 속에 담긴 문화재, 야생화 들이었다. 야생화 탐사에 맞들이던 시절, 사진이 주는 묘한 치유의 힘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작가는 뉴스에서 금남로의 전남도청이 이전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현존하는 문화재의 기록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장소의 기록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휩싸였다. 도청은 그렇게 다가왔다. 봄여름가을겨울 건너편 옥상에서 혼자 구도청을 조응할 땐 구도청이 '내가 쓰러져 간다' 라고 사람처럼 말을 걸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울기도하고 웃기도 했었다. '도청이 아프다' 는 소리를 들었다는 그는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데에 대한 아쉬움이 피사체인 구도청과 자신을 일치시켜 낸 듯싶다.

“지금 생각해도 그 때의 결정은 잘했다”고 말한다. “사진도 피사체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과의 교감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거든요. 사진이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주관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사체가 말을 걸어오고 그 교감 속에서 사진을 찍게 되더라구요”

영산강을 찍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였다. 이명박 정권에 의해 4대강이 훼손될 때에도 승촌보 공사 현장에 홀로 서서 파괴의 현장을 사진으로 담았던 이유이기도 했다. 그에게 있어 현장은 일터이다. 용산참사 관련 광주 집회 현장, 세월호 집회엔 어김없이 작가의 카메라가 응시한다.

도청을 찍게 된 이후부터 역사적 현장뿐만 아니라 원도심에서 도시인들의 삶과 관련된 흔적들이 사라져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학동팔거리도 재개발 이전부터 시작해 꾸준히 사진을 찍게 되었다. 철거를 앞둔 도심 지역들에 대한 기록의 중요성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가장 안타깝다고 한다. 지역의 역사와 그 속에 깃들여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사라진다는 것은 추억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청앞 회화나무도 그랬다. 살아 있을 때부터 기록하고, 고사한 후에는 지인들을 모아 '제' 를 지냈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후계목이 나타나서 심게 된 일련의 과정은 하나의 스토리였다.



2007년도 대선에서 민주세력의 패배 이후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렸던 그 겨울에 진정한 봄이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전남도청을 찍었던 사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한다. 1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생생한 기억 때문에 자신의 사진 전에는 항상 겨울 풍경사진을 꼭 넣게 되는데 민주주의의 봄날을 기다렸다는 의지의 표현이란다. 이번 전시회의 메인사진이 하이앵글로 잡은 2007년 12월 30일 눈 내린 구도청 사진인 이유다.

사진작가로서의 경제적 삶에 대해 던지시 묻는 질문에 보통 사람들의 경제적 관념에 비추어보면 투자한 만큼의 이득은 없다. 하지만 역사적 책무, 소명의식, 사명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 그래서 삶을 단순화시켰다고 말한다. 사진 찍는 일을 지속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면 되고, 그 정도는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진다는 낙관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있단다. 여러번의 개인 전시회도 관의 지원 없이 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을 밀어 올리는 힘은 자신의 사진에 공감해주는 사람들이라고 힘있게 말한다.

이 공감의 힘이 구도청에 대한 관심과 5 18사적지 재정비 등 사진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지 싶다. 사진은 현장성과 반복성을 통한 리얼리티를 담아내는 노력이 중요하고, 한 곳을 찍더라도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무한히 달라지는 순간을 담는 노력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가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에서 지치고 힘든 이들과 함께 구불구불 갔으면 좋겠다. ♪

문화진단

지역문화진흥법의 성과와 과제

서순복_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역사업은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자율편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현실에서 법이 제정된 지금,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중앙문화정책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실효성을 담보해줄 필요가 있다.

1.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후의 성과

현 정부 들어 문화융성이라는 국정 기조 하에서 ‘문화기본법’이 2013년 12월 10일에 제정되었고,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 2014년 8월 19일에 제정되었다. 법 제정 이후 2년이 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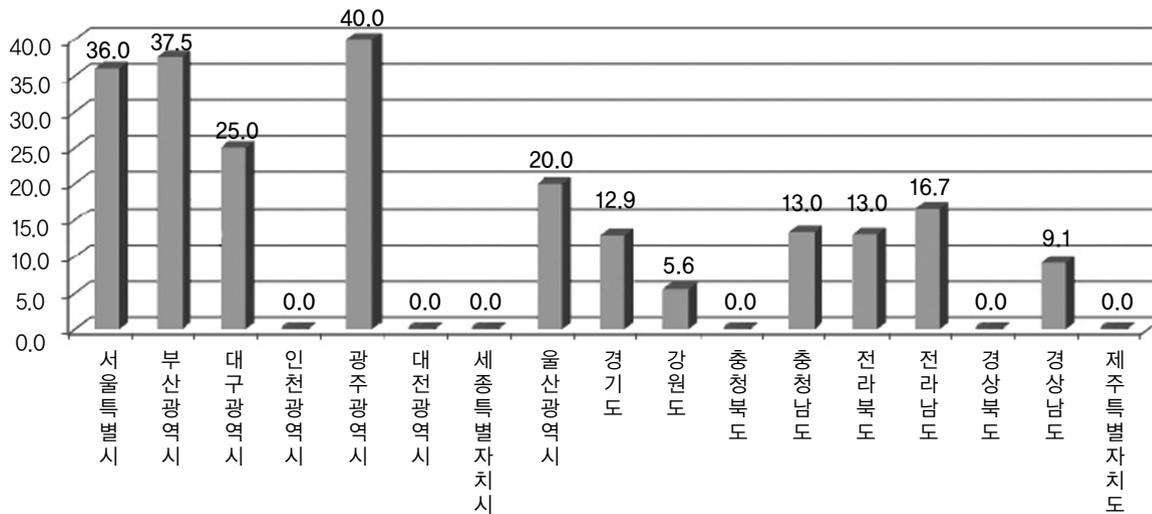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 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또 법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보충·평가하여야 한다(제6조). 시행계획 수립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계획 실행에는 결국 예산이 문제가 된다. 기본계획에서는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지 않고 사업 아이템만 제시하고 실질적인 예산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에 담게 된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역사업은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자율편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현실에서 법이 제정된 지금,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중앙문화정책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실효성을 담보해줄 필요가 있다.

법이 제정되고 나서, 전국 자치단체별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자치입법이 제정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문화진흥조례 예시안을 지자체에 송부하였고 대다수 지자체에서 제정하였다.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이외에도, 중앙문화부처는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문화지구 관리 및

〈지역문화진흥종합계획 수립 자치단체 현황〉



육성에 관한 조례(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이라는 표준모델을 제시하였다.

법 제2장에서는 생활문화지원과 생활문화시설 확충지원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살고, 교류하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고서는 표현은 있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표현자는 '뛰어난' 프로 예술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민이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우수한 '생활'의 장과 '교류'의 장, '학습'의 장이 있는 것이야말로 우수한 '표현'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며, 달성된 '성과'라는 선별적인 조건을 전제로 해서 무명의 프로페셔널과 다수의 아마추어는 배제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역문화행정·정책은 프로와 아마추어를 불문하고 시민에게 그 존재의의를 갖는 것이며, '시민 모두가 문화적 존재'라는 인식과 이념을 빼고서는 있을 수 없다(서순복, 2004). 이러한 이념에 입각한 시민문화의 활력이야말로, 지역과 도시 정체성의 기초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생활문화진흥 규정은 그 의의가 크다. 생활문화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지역의 생활문화진흥'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지역 혹은 지방이어야 한다는 점

에서, 국가가 지역의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규정(제7조)의 운용은 특정 단체나 동호회뿐만 아니라 주민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문화적 욕구의 충족 및 발산, 교류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법 제3장에서는 지역문화진흥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간, 지역-기업 간 협력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2015년 6월에 지정하여 추진 중이다. 지역문화의 자생력과 지역문화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자치를 활성화하는 데에서 전문인력의 중요성과 역할이 커지고 있다. 경력인증제 또는 자격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활동이 지닌 문화적 가치와 일자리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이후에 전문성과 현장성이 강화된 전문인력을 생활문화자원센터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에서 전개되는 각종 문화 프로젝트에 지역인재 할당제(쿼터제, 예컨대 최소한 30%)를 실시하여 수도권 전문인력의 활용과 지역인력 발굴육성의 균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에만 문화전문인력이 있는 것도



1 문화관련법 2 지난해 개최된 민선 6기 전반기 문화정책평가 포럼

아니고, 지역의 문화기획·연출 역량이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역사성과 지역성의 토대 위에서 문화창조역량을 북돋우어야 한다.

한편, 법 제4장에서는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분야별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문화도시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심의위원을 2015년 7월에 위촉하였다. 법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5조). 다만 「지역문화진흥법」에 문화도시 조항이 있기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관련 특별법 제정보다는 해당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정

체성, 창조성, 예술성을 토대로 문화도시 조성계획 입안 역량을 강화해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신청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 제5장에서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 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제19조). 우리나라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 독자성, 책임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문화재단의 조례, 정관, 예산구조, 조직구조 등 제 규정의 적극적 변화가 필요하다. 문화재단의 기능이 문화시설관리에서 정책개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예술단체 지원, 지역문화협력 및 교류 등으로 대상사업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조례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상술한 바와 같이 법의 시행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자체별로 지역문화진흥조례를 포함하여 다수의 관련 자치입법이 제정 중이고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생활문화지원센터 건립, 생활문화공동체 조성 등을 포함하여 지역문화진흥 관련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아직 시작단계라 법 집행상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특별히 찾기는 어렵다.

이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차원을 넘어, 문화민주주의 시대에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라는 철학과 패러다임을 방향으로 확립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문화행정이 국가 문화행정의 축소판일 필요는 없다. 국가는 중앙정부 주도로 지역문화정책을 전개하려 하지 말고, 지역의 자생적 문화수요와 역량이 부족한 현실에서 지역문화의 자율적 발전을 간접 지원해야 한다. 지방은 중앙정부에 의존하거나 중앙문화 아니 서울문화를 모방하지 말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문화정책을 개발·집행하여야 한다. 즉 문화자치 차원에서 지역특성화를 시켜야 한다.

진정으로 생활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 정책대상집단에 주민생활문화단체나 동호회 이외에도 그 외연을 확장하여, 시

민문화자치의 활성화로 문화예술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문화예술 감상, 비평, 표현 그리고 창조와 교류 능력을 향상시키며, 지역문화 전문인력층을 두텁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문화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2. 지역문화진흥법의 실효성과 과제

지역문화진흥법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지역문화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법제도 정비는 지역문화활성화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과 달리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온 문화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을 통하여 지역문화를 진흥하고자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고민해봐야 한다. 첫째, 무엇을 진흥할 것인가? 진흥하고자 하는 지역문화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 어디까지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고 개입해야 하는가? 지역주민이 움직여줘야 하는가?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에 영향을 미쳤을 때 문제점 없이 실행되고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다양성보호증진법, 예술인복지법, 문화기본법 제정 등으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분권은 법적 측면에서는 거의 완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을 지내오면서 문화예산이 현 정부 들어서 2% 공약의 달성이 예상되고¹⁾, 한류를 위시하여 새로운 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창조의 원천으로서 문화의 힘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 지역문화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목적에도 나타나있듯이 제일 중요한 핵심 목표는 문화격차의 해소라고 하고 있지만 이는 소극적인 의미이고,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통해 전체적인 문화분권화로 가는 것이다. 전반

적인 한국사회 분위기가 문화정책 대상집단으로 고전적 예술인(단체)을 상정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생활인으로서의 예술인(예술노동으로서의 예술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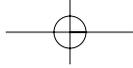
지역단위 내에서 문화예술시장이 협소해 계속 중앙(서울)으로 이전하는 경향을 부인 할 수 없다. 게다가 도로교통망이 확충되어 계속 서울로 이동해갈 것이다(?). KTX의 개통으로 삶이 반나절권 거리로 공간이 압축되어 물류적 측면에서는 이윤이 창출되나, 지역문화, 정신적 가치와 관련해서 이것이 또 다른 기회일까?

1973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이후 지난 40년간 국가주도 문화예술정책의 기본구도는 예술인(단체) 창작 지원, 창작의 결과에 대한 일반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생활문화' 개념의 등장으로 아마추어 예술인과 동아리에 대한 직접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렇다고 모든 영역들이 생활문화로 갈 수는 없지만, 기존 한국사회의 문화예술정책의 전환점이 되었다. 예술인의 창작을 최고로 지원해 좋은 공연이 이루어지면 문화도시가 되는가? 클래식 영역도 고급문화 소비대중이 형성되어야 예술시장이 살아나고 문화향유를 통해서 문화적 감수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프로슈어(proteur)²⁾, 프로슈머(prosumer)³⁾들이 예술 향유와 창조의 주체로 본인이 연주자가 되고 예술참여자가 된다. 일반 향유자에 비해 예술적 감수성이 증대될 것이다. 2000년을 넘어서면서 일반 시민 영역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애호가도 아니라, 예술의 주체자로서 형성되면서 문화도시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예술지원정책의 상당 부분이 그 분야로 확대되어갈 것으로 보인다. 

1) 현재는 1.9%

2) professional과 amateur의 합성어.

3) producer와 consumer의 합성어.



문화진단

광주폴리(Gwangjufolly) 1, 2차와 3차, 그리고



류영국_ 지오시티(주) 대표

도시공간에 다양한 스토리와 모뉴먼트(monuments)가 있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문화예술이 녹아 익고, 방문객들이 찾아와 이를 기념(記念)하고 희노애락(喜怒哀樂)을 함께하고 다음을 약속하는 일련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1. 들어가면서

나는 광주 토박이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창시절을 보냈다. 몸부림치고 뜨거웠던 대학시절에 5.18도 겪었다. 긴 시간을 지금의 도심에서 보내고, 지금은 신도심인 상무지구에서 근무하며 살아가고 있다. 머릿속에 박힌 광주의 기억을 나열한다면, 5·18, 문화, 교육, 민주 등 이다. 도시와 관련된 일을 해오면서 늘 회의(懷疑)가 드는 것이 몇 가지 있다. 광주라는 이름의 도시역사가 1000여년이 넘었는데, 역사도시의 면모를 찾을 수 없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문화예술의 도시인가 등 이다.

광주비엔날레가 1995년 '경계를 넘어'라는 주제로 시작하여, 격년으로 20년이 넘게 지속되어 오고 있다. 디자인비엔날레가 2005년 '삶을 비추는 디자인'으로 출발하여 금년에는 '미래들(Futures)'이라는 주제로 9월 개막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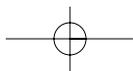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우여곡절 끝에 2015년 11월 25일 개관식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행사와 시설이 광주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가? 산과 들에 피어오는 봄꽃들처럼, 가을 산의 단풍들처럼

우리의 일상을 문화예술로 물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광주시민 모두가 문화예술도시만이 살길이라는 일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문화예술도시는 도시공간에 다양한 스토리와 모뉴먼트(monuments)가 있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문화예술이 녹아 익고, 방문객들이 찾아와 이를 기념(記念)하고 희노애락(喜怒哀樂)을 함께하고 다음을 약속하는 일련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광주폴리(Gwangju Folly)는 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하여 탄생되었다. 여기에서는 1, 2차 폴리와 3차 폴리의 특성과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한다.

2. 1, 2차와 3차 광주폴리

광주폴리는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을 맡았던 승효상 건축사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폴리(Folly)란 원래 '다소 우둔하고 우수꽝스러운 것'을 뜻한다. 1980년대 중반 버나드 츠뭉미(Bernard Tschumi)가 파리의 라빌레트 공원(Parc La Villette)을 설계하면서 35개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명명한 것



이 최근 폴리의 기원이다. 건축용어로는 간단한 구조물이지만 문화적 예술적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의 공공시설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유사한 관련 시설로는 1%의 법으로 명명된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미술장식품이 있다. 도시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가로(街路)나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조형물인 환경조형물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광주폴리(Gwangju Folly)'는 공공공간속에서 장식적인 역할 뿐 만 아니라 기능적인 역할까지 아우르면서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정의되고 있다.

광주의 시원(始原)인 광주읍성터를 한 바퀴 돌아 볼 수 있도록 일정간격으로 입지한 1차 광주폴리는 적지 않은 민원에 시달려야 했다. 개막일에 맞추어 급조된 광주폴리는 시민들의 사랑보다는 혹독한 비판의 못매를 맞았다. 시민단체들이 공개질의서 형식으로 광주시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로 시민들과의 소통없는 행정 편의적인 일방적인 사업추진, 둘째로 광주의 정체성, 역사성, 장소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셋째로 스타마케팅(피터 아이젠만 등 국제적으로 유명한 작가에 의존)에 의존한 행정편의주의적 사업, 넷째 도시재생사업 등 광주시의 공공사업과의 연계부족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번잡한 도심 교차로의 짜투리 공간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탄생시킨 후안 헤레로스의 소통의 오두막과 옛 구시청 앞에 불법 주·정차로 혼란에 극치를 이루던 지역을 질서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도미니크 페로의 열린공간은 사랑을 받으면서 시민생활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미디어 아트로 분장한 피터 아이젠만의 99칸과 나테르 테라니의 광주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나 광주의 야경을 만들고 있다.

1차 광주폴리는 광주읍성터라는 강력한 장소성에 바탕을 두고, 다양한 도시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한 해법(solution)으로서의 조형물이다. 2차 광주폴리는 공간의 제약에서 탈피한 아이웨이의 포장마차, 램 쿨하스의 투표, 서도호의 틈새호텔, 락스미디어 콜렉티브의 탐구자의 전철 등 이동성에 바탕을 둔 작품과 광주역의 혁명의 교차로, 도청앞 분수대 지하광장의 기억의 상자 등은 5·18의 모뉴먼트들이 1차 폴리와와 연장선상에서 디자인되고 공간적으로 확장되었다. 여기에 감독인 리콜라우스 히르쉬의 광주 도시공간에 대한 이해부족과 광장을 중심으로 한 공공공간의 잠재성과 창조적 대안으로서

광주폴리 프로젝트의 전개는 의욕만큼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1차 폴리에 비해 작품성과 기능성이 크게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민선 6기 윤장현호의 출범과 함께 중단론으로 이어져 혹독한 평가과정을 겪게 하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2차 광주폴리는 아직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3차 광주폴리는 2차 큐레이터로 참석하면서 광주에 대한 이해와 광주폴리의 방향성을 간파한 천의영 감독의 번득이는 아이디어와 순발력이 돋보인다. 광주폴리를 '도시의 맛과 멋'을 느끼고 체험하는 영역으로 확장시키면서 새로운 폴리유형으로 뷰폴리, 쿡폴리, 뽀뽀폴리, 미니폴리와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된 GD폴리를 제안하였다. 특히, 광주도심 재생사업의 핵심시설로 기능을 몰고온 장진우의 쿡 폴리는 청년들의 창업과 맞물려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도심의 버려진 뒤편길을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끌어올린 건축가 김찬중과 광주의 글로벌아티스트 진시영의 뽀뽀폴리는 유네스코지정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와 어울려 관심을 끌고 있다. 시민사회의 비판과 존폐론의 파고를 겪으면서도 탄생한 3차 광주폴리는 적은 예산과 짧은 기간으로 아직도 진행중인 작품이 있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3. 마치면서

광주폴리는 문화예술도시 광주 도시공간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소품(小品)이자 이벤트다. 광장에서 도로에서 공공공지에서 시민들의 일상을 디자인하고, 품격을 올려주며, 재치와 기지(機智)가 엿보이는 예술작품이다. 후미진 골목과 버려진 뒤편길, 공·폐가가 밀집된 도심재생지역, 노인과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산동네에도 젊은 문화예술인들이 주민들과 함께 작품 활동을 하고, 곳곳에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번득이는 기지가 엿보이는 작품이 광주폴리사업과 연계되었으면 한다.

광주폴리가 허약한 문화예술자원과 빈약한 재원 속에서도 문화예술도시 광주를 공고히 해가는 보완재(補充財)이면서, 광주의 맛과 멋을 체험할 수 있는 기반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해석으로 도시공간속에서 시민들의 한 차원 높은 문화예술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일상속에 녹아있는 참신한 대체재(代替財)로 발전되어 가기를 기대해 본다. ♪

문화현장

‘세월’에서 다시 ‘오월’로

김선출_ 전남대 민주동우회 상임집행위원, 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기반조성팀장



다시 봄이다. 해마다 오는 봄이지만 올 봄은 왠지 설레임이 크다. 세월호가 인양되어 마지막 미수습자를 부모 가슴에 안겨드릴 수 있을 지 걱정이 앞서지만 사고원인의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으로 유명처럼 파리를 틀고 우리 의식과 일상을 좀먹었던 박정희 ‘유신신화’가 힘을 잃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5월 대선에서 승리하여 정권교체로 다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만들어진 적폐들을 하나하나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 일이다.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 언론 민주화, 재벌개혁, 교육정상화, 양극화 해소 등 해묵은 과제들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아니지만 새로운 정부와 함께 개인 시민들의 힘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가능한 일일까? 무슨 수단과 방법이 있을까, 이번에도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다시 촛불광장을 되돌아보는 이유다.

작년 10월 말부터 20여 차례 열려 1,600만명이 넘게 참가한 촛불집회에 대해 서울시는 촛불집회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 추운 날씨에도 자발적으로 광장에 나와 오직 작은 촛불 하나에 의지해 갈구하고 염원했던 나라다운 나라, 무능한 대통령 탄핵과 구속, 세월호 진실규명, 부정한 재벌 해체, 수구기득권 세력 청산 등을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결코자 한 것이다.

매주 집회마다 새로운 문화축제로 진화하면서 애국가가 감동의 노래로 변하고 자발적인 모금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남았으며 주위의 상점은 먹을 것을 나누고 화장실을 개방했다. 생면부지의 익명의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배려와 양보로 질서 있는 평화의 거리공동체가 되었다. 이것이 시민혁명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다시 오월이다. 37년 전 해방광주의 금남로 분수대 광장이 그랬다.

계엄군을 퇴각시켰으나 고립무원의 고도로 변해버린 광주에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으며 무엇을 해야 했을까. 일단의 승리를 쟁취한 시민들은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계엄군에 대한 공포심과 함께 향후 사태 전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 때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 결집과 현 단계 사태의 정확한 진단을 통한 향후 대책이었다. 이를 가능케 했던 것은 ‘시민결기대회’였다.

도청앞 결기대회는 매일 수십만명의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뤄 열기를 더해갔다. 각계 각층의 의견과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이 주장들은 곧바로 현장에서 공식적인 투쟁방침으로 결집돼 도청 내 항쟁지도부에 전달돼 항쟁의 최고 의사기



오는 5월 21일 광주에서 촛불집회 정신과 성과를 되살리는 '진짜 민주주의' 판이 열린다고 한다. 광주시민의 날에 만민공동회인 '금남로 시민정치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것이다. 좋은 정책을 알리고 배우는 정책마켓, 자원봉사박람회는 기본이고, 광주형 정치 대성회인 시민총회를 연다고 한다.

구 역할을 함으로써 민주적 대중자치, 곧 '만민공동회' 역할을 했다.

궤기대회는 회를 거듭할 수록 시민을 하나로 결집시켜 투쟁을 지원, 지도하는 양상이 됐으며, 한편으로 시민들의 역사 의식과 정치 의식을 고취하는 학습의 장이 되기도 했다. 또한 무정부 상태의 고립된 도시에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부상조의 공동체 정신을 고양시켜 자치행정의 길을 제시했다. 생필품 나누어 쓰기, 거리질서 회복, 교통과 치안 복구, 부상자 치료와 사망자 장례 등이 궤기대회에서 논의되고 시민들은 이에 따랐다. '시민행동강령' 등 자치적 단계를 넘어 '민주인사 구국내각 구성' 등 국가권력의 창출 방향으로까지 나아갔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를 앞당기고 군부정권을 종식시키고 마침내는 평화적 정권교체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 의식과 공동체 의식은 5·18민중항쟁의 가치와 의미를 드높인 것으로 세계 민중항쟁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례가 되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오늘의 촛불정국과 촛불집회에서 80년 5월 도청 분수대 궤기대회를 떠오르게 하는 것으로 문화운동과 문화적 양식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궤기대회는 마당극과 연극, 미술, 노래, 인쇄, 방송, 대자보, 성금, 전기시설 등 여러 분야의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협력 속에서 이뤄졌다.

계엄군의 재 진입이 목전에 닥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감동을 만들 수 있을까 절박한 고민도 많았다. 의례, 상황보고, 시국연설, 호소문 낭독, 노래, 화형식 등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춰 현장에서 즉석 연출과 연기가 이뤄졌다. 노래의 경우 시민들은 모두가 아는 노래로 '아리랑'을 부르자 제안하고 이어 광장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시민들은 거대한 강물이 돼 어깨동무하며 하나의 대열로 흘러갔다. 37년 후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부른 '애국가' 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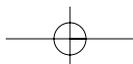
80년 광주의 궤기대회는 유신치하에서 힘겹게 축적한 당대의 문화운동 역량이 총동원됐으며 시민들의 생사와 민주화가 기로에 선 백척간두의 극한 상황에서 새로운 문화행위 양식과 전술이 보태지면서 혁명적 계릴라 문화양식을 탄생시켰다.

이렇게 형성된 5월문화는 80, 90년대를 거치면서 거대한 민족민중문화운동으로 승화됐다. 그 역사와 미학을 체득한 문화예술인들이 바로 '박근혜 블랙리스트' 요 촛불집회의 문화적 원동력인 것이다.

오는 5월 21일 광주에서 촛불집회 정신과 성과를 되살리는 '진짜 민주주의' 판이 열린다고 한다. 광주시민의 날에 만민공동회인 '금남로 시민정치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것이다.

좋은 정책을 알리고 배우는 정책마켓, 자원봉사박람회는 기본이고, 광주형 정치 대성회인 시민총회를 연다고 한다. 100개 민회를 열고 수립된 정책제안을 광주시와 의회가 협약을 맺고 조례로 제도화 한다고 한다.

오월광주의 역사는 이렇게 촛불로, 시민정치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구태의연한 정당과 속물 정치인이 주권재민 의식으로 무장한 시민들로부터 축출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언론 법조 관료 재계 등이 땅의 썩은 기득권 세력도 그리되어야 한다. 다시는 오월영령과 세월호 희생자, 백남기 농민의 비극이 우리 자식들에게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하여. ♪



문화현장

고려인 마을 방문의 해

이천영_ 새날학교 교장



1. 고려인동포는 누구일까?

일제 때 만주로 간 사람들은 조선족이고 연해주로 간 사람들을 고려인으로 부른다. 고려인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까지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지역으로 이주한 동포들이다. 고려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독립국가연합 내에 거주하는 한국 교포들을 총칭하는 용어이며 러시아어로는 '까레이스키' 라고 부르고 있다.

2. 고려인마을 형성 과정

광주의 고려인마을은 2000년 1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일하던 우즈베크출신 고려인 신나탈리아씨 1년치 체불 임금 해결이 계기가 되어 고려인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그 후 평동공단에서 일하던 우즈베크출신 신조야씨가 나서 한국어를 모르는 동포들의 대소사를 돕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고려인동포들이 광주를 찾아들기 시작했다. 현재는 4,000여명의 고려인들이 광산구 월곡동을 중심으로 고려인 정착촌을 이루고 살아가는 국내 최대 밀집도를 가진 고려인마을이 되었다.



고려인강제이주8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17년 9월 15일)



고려인마을 라디오방송



2017년을 '광주고려인마을 방문'로 정하고 관광객 10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해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고려인마을은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술포럼, 문화행사, 연극, 특화거리축제, 사진전, 음식체험과 기념행사는 물론 특화거리 활성화를 통한 조상의 땅 생존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3. 고려인마을 특화거리

이제는 광주 광산구 월곡동을 중심으로 고려인마을특화거리가 조성돼 고려인전통음식점과 여행사, 핸드폰가게, 기념품상점, 마트 등을 운영하는 관광거리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고려인마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센터, 그리고 고려인주민들의 소통의 창인 마을방송국 고려FM이 운영되는 전국 어디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고려인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낱알이 찾아드는 고려인동포들의 안정된 정착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고려인마을은 대책마련에 고민하다 고려인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한 사업을 시작했다.

4. 고려인마을 방문의 해

다름아닌 2017년을 '광주고려인마을 방문'로 정하고 관광객 10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해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고려인마을은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술포럼, 문화행사, 연극, 특화거리축제, 사진전, 음식체험과 기념행사는 물론 특화거리 활성화를 통한 조상의 땅 생존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행사로는 3월 고려인동포 '3.1만세운동 재연' 행사에 이어 4월에는 광산구 월곡동 제2어린이공원 야외무대에서 '고려인마을아리랑가무단'의 특별공연과 강제이주 사진전이 열린다. 5월에는 마을방송인 고려FM이 주최하는 노래자랑이 이어지고, 6월에는 국내정착 고려인동포에 관한 학술포럼, 8월에는 8.15광복절 기념식, 9월에는 지난해 무대에 올렸던 연극 아!나의 고향 연해주, 타슈켄트, 광주 공연이, 10월에는 제5회 고려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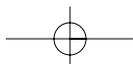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고려인마을 방문의 날로 정하고 고려인마을 특화거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먹거리장터와 고려인강제이주 체험행사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0월에 열리는 제5회 고려의 날 행사에는 유랑민으로 전락 중앙아시아를 떠돌다 국내 귀환 어렵게 살아가는 고려인동포들이 광주에 정착하도록 도움을 준 인사에 대한 감사장 수여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 영구 보관하는 작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려인마을은 기념행사를 위한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있다.

광주시민들의 관심어린 방문과 지원은 광주고려인마을이 또 하나의 광주의 명소로 발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국가의 소중함을 심어주고, 역사학도들에게는 잊혀진 고려인선조들의 국권회복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들을 복원하는 살아있는 역사박물관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 고려인마을 홈페이지(<http://www.koreancoop.com/>) - 검색창에서 '고려인마을' 고려fm(플레이스토어에서 고려FM치시면 앱 다운받을 수 있음)



문화현장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지원포럼’을 아십니까



임재성_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상임이사

약속 시간이 가까워오면 한 명, 두 명 회의실에 모습을 나타낸다. 어떤 때는 한 달 만에, 또 어느 경우에는 두 달 만에 만나는 얼굴들이어서인지 반가움이 앞서는 모양이다.

“요즘 얼마나 바쁘게 사시는지 얼굴 뵙기가 힘드네.”

“지난 번 만났을 때보다 신수가 흰해지셨어요. 오매, 얼굴에 찰찰 흐르는 기름기 봐.”

“뿔이라고? 인자 노안이 돼버렸는갑네. 요즘 살기가 팍팍해짐서 부항기로 들뜬 살인데 고것을 못보고...”

서로 손을 맞잡은 채 물색없는 농담도 한 마디씩 던지고, 따뜻한 차 한 잔까지 곱살긋게 곁들이다보면 서서히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다가올 이슈포럼 주제를 정하는 기획위원들의 회의가 시작되면 분위기는 달라진다. 기본적인 바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지, 지금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화두는 없는지, 특히 광주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진지하게 논의한다. 한 위원이 주제를 제시하면 동의하는 이들도 있고, 자신의 논리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이도 있다. 그렇게 주제가 정해졌다고 회의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주제발표자는 누가 적합한지, 또 토론자는 몇 명으로 하고 누구를 선정할 것인지, 다시 머리를 맞댄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해진 시간을 훌쩍 넘기는 일이 다반사다. 개인적인 업무 처리나 다른 회의 참석 등 저마다 뒷일이 산더미지만 모두 모르쇠 한 채 열정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

회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미안하고 감사한 일이다. 이들의 열정과 봉사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이하 ‘지원포럼’)의 위상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광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지원포럼은 지난 2013년 민 관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아시아 지역 문화도시간의 교류를 통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 관협의체이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분야 교수는 물론 예술가, 기획자, 연구원, 기관 종사자 등 60여 명이 위원으로 위촉돼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위원들의 도움으로 ‘아문도시 이슈포럼’, ‘문화공감 토크콘서트’, ‘7대문화권 활성화 간담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특히 5차례에 걸쳐 개최된 ‘아문도시 이슈포럼’은 문화 관련 지역 현안을

지원포럼은 올해 더욱 시민과 협력하고 소통하는데 방점을 둘 계획이다. 시민 곁을 더욱 자주 찾아 함께 지역 문화를 이야기하고 현장을 둘러보며, 문화 발전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데도 팔을 걷어붙일 방침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핵심은 광주시민'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의 명제다.

끌어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진행돼 언론과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광주 5대 전략 콘텐츠산업, 광주 문화거버넌스 구축, 문화도시 광주 문화역량, 문화전당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7대 문화권 사업 활성화 방안 등 각각의 주제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우리만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도록 하지 않기 위해 문화부, 광주시청, 관련 문화기관 등에 정책집으로 만들어 제시하기도 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주년을 맞아 기획된 '시민대토론회'는 폭넓은 층들의 견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토론 참여자를 대폭 늘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예술인과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장으로 꾸며 의미를 더했다.

지원포럼의 활동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국제문화교류행사이다. 지난해부터 (재)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통합되면서 외연이 확장된 것으로, 책임과 역할이 커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는 지난 2014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원년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원포럼은 지난해에만 제주, 일본, 중국 등 수차례 국내·외를 오가며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 '문화도시 광주'를 알리는데 주력했다. 광주에서도 프린지페스티벌, 한 중 일 9개 동아시아문화도시 초청 건축포럼 행사를 개최해 우리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이라는 단체를 생소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은 듯 하다. 명함을 건네면 '이름이 너무 길어서 외우기 어렵다.'거나, '광주시가 아닌 문화부의 한 조직 아닌가', '단체를 말하려면 허부터 꼬이는데 줄임말은 없는가.'라고 묻는 이들도 있다.

이에 따라 지원포럼은 올해 더욱 시민과 협력하고 소통하는데 방점을 둘 계획이다. 시민 곁을 더욱 자주 찾아 함께 지역 문화를 이야기하고 현장을 둘러보며, 문화 발전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데도 팔을 걷어붙일 방침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핵심은 광주시민'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의 명제다. 시민들이 소외된 조성사업은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에 시민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기대한다. ♪



1 요코하마 음악제 2 중국 동아시아 공연단 초청

문화현장

광주를 가장 광주답게 일구어 온 사직동



구용기_ 사직동 문화재 보존 시민모임 대표

사직공원과 광주공원을 두고 있는 광주문화의 중심 사직동에는 다양한문화가 공존한다.

광주의 장고한 역사를 간직한 전통문화, 학문과 예절을 중시한 향교교육문화, 외세와 독재에 항거한 의향문화, 우리소리의 전통 국악문화, 통기타와 함께하는 포크문화, 13개의 시비석과 함께하는 문학의 마을, 아낙네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였던 통샘 문화, 도심 속에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생태문화를 간직한 사직동은 그야말로 광주문화의 원형이며 광주의 보물창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옛 사람들은 60m의 성거산(광주공원)의 거북형상이 광주의 복을 지켜준다 믿어 거북이 광주를 떠나지 못하도록 거북의 등에 성거사와 목에 오층석탑(보물 제109호)을 세웠다. 광주천의 잦은 물난리로 인한 백성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고려시대 광주목사 김상이 인공의 섬을 만들고 이를 기념하여 석서정을 만들었으며 고려의 문인 이색은 석서정기에서 빛고을(光之州)라는 어원을 기록하였다.

조선 태조 3년(1394년)에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설치되고, 1894년 광주여제와 함께 폐지되어, 일제의 군사훈련장으로 사용되었다가, 1960년대 말 사직동물원이 들어서면서 헐렸다가 1993년 복원된 사직단, 일제 강점기 국폐 신사와 일본인 위락시설인 식물원, 공원으로 강점과 수탈을 당하며 '성거산'이라는 본래의 이름조차 잃어버리고 일제의 신사 강제참배와 학생독립운동의 아픔을 기억하는 광주공원.

1879년 간행된 광주읍지에는 김덕령, 고경명, 전상의장군을 광주 3충신이라 기록하였다. 정묘호란때 안주성에서 순국한 전상의장군은 구동 출신으로 광주를 관통하는 국도 1호선 구간을 장군의 호를 따라 구성로라 명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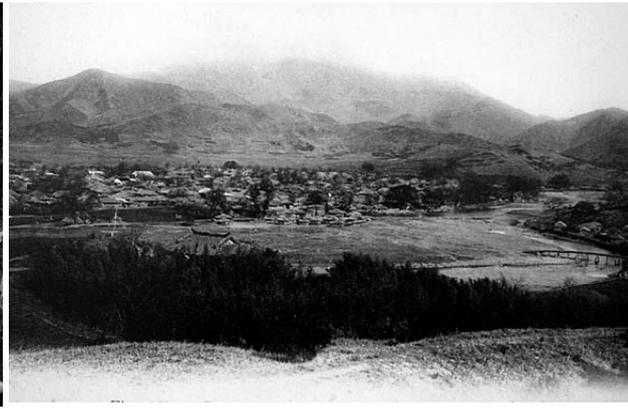
광주향교 인근 선정비군의 권율장군 창의비는 의로운 도시 광주의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소집하는 권율의 창의문에 광주인들 수천 명은 의병이 되어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안위마저도 돌보지 않고 외세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길에 앞장섰다. 불의와 외세에 굴복하지 않는 광주정신의 발로이다. 1488년 사직동으로 이전한 광주향교(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9호)는 학문과 예의 근원으로 500여년을 광주를 지켰고 1896년에는 기우만의 불의와 외세에 항거하는 거의의 장이었다.

1896년 사마재에 지역 최초의 근대 교육장인 관촬부보통공립소학교가 들어서고, 1907년 공립소학교가 현재 전일빌딩으로 이전하자 그 자리에 우리나라 최초의 금융조합(현 농협)이 설립되었다.

광주 대부분의 물류가 거래되고,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된 광주공원광장의 큰 장터와 부동교부근의 작은 장터, 일제강점기에 흥학관을 만들어 민족의식을 불러일으켰던 최부자집과 물산장려운동을 하였던 녹성상회건물은 일제강점기의 역사



광주공원 사적비



옛 사마재 전경

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이외에도 광주지역에 유일하게 남은 효자문 남평문씨 쌍효문, 광주최초의 공공 공연장이었던 시민회관, 518광주민중항쟁당 시 충기교육을 하였던 광주공원광장, 광주최초로 방송을 송출한 구)KBS방송국, 호랑이가 유명했던 동물원, 호연지기를 기리는 관덕정, 12개의 시인과 위인들의 시비석, 광주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빛의 타워, 1987년 민주화운동의 중심이었던 서현교회앞 중앙로등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광주역사의 다양한 문화가 한곳에 모여 있는 사직동은 광주문화의 근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보호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각계의 뜻있는 인사들이 2014년 사직문화보존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을 만들어 사직동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역사를 지역의 자생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4년에 역사, 문화자원을 전수 조사 하였고, 2015년 3회, 2016년 2회의 토론회는 친일인사 윤용열, 이근호선정비의 처리 문제와 역사둘레길을 조성하여 광주역사의 장을 만들자는 의견과 광주의 모든 기록을 전시할 광주메모리얼 센터가 필요하며, 다양한 의향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사직동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기도 하였다.

여러 차례의 세미나를 통한 사직문화의 미래 비전 제시와 기획은 도심 속 광주의 전통과 의향문화를 발굴 개발로 의향광주의 새로운 광주관광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제1회 사직단오잔치는 주민회합과 전통계승을 위한 마을잔치로 시작하였지만, 2017년 광주사직단오제는 마을을 넘어 시민들이 함께하는 전통의 축제로 발돋움 하였다. 6월 3일과 4일, 이틀간 진행할 광주사직단오제는 SNS 공모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는 시민참여형 행사인 광주목사행렬과 행렬 중 재연될 마상재는 말과 기수가 함께하는 재주로 생소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그림, 글짓기경연은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형 축제를 지향하며, 사직동 전역에는 무형문화재들의 작품 전시와 단오와 관련된 세시풍습 등 전통 체험과 3D 프린터, 드론 만들기 등의 최첨단 과학 체험은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광주를 대표하는 전통축제가 될 것이다.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사직문화 팸투어는 아픈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광주정신이 함양된 사직역사 둘레길을 주민들 스스로 조성 개발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순수한 자원봉사로 진행하고 있다.

시민모임에서 실시한 2차례의 사직문화해설사양성교육을 수료한 해설사들은 사직동의 돌뿌리, 풀뿌리 하나하나가 광주의 역사라는 역사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광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

문화특특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

김정희_ 시인, 재단 부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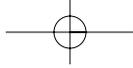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고 규정 되어 있다. 최근 문화 예술계는 소위 리스트의 멧에 간혀 우울과 분노에 쌓여 있었다. 검은 명단에 있던 이들이나 그 명단에 없던 이들까지도 냉소와 불만을 토로했다. 가끔 모임 자리에서 “불행히? 블랙리스트에 들어 있지 않은 작가 ○○○입니다.”로 자신을 소개하는 이도 있어 이 시대 문화예술인의 비애가 씩씩하게 다가왔다. 블랙리스트(Blacklist)는 경계를 요하는 사람들의 목록이다. 이와 반대로 화이트리스트는 허용되거나 권한이 있는, 식별된 실체들을 모아놓은 목록으로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의 파문은 문화예술계 전반에 관행을 돌아보게 하고 또 이후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다.

문화가 넘쳐 나는 사회지만 문화가 없는 세상을 생각하면 블랙아웃이 아닐까? 우리는 문화를 통해서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읽어 내고 또한 타인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 간다. 그런데 문화 예술인들의 창작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지원금은 분배라는 수단으로 오히려 문화·예술·현장을 갈등과 경쟁의 구도로 나누어 놓았다. 그것은 사회가치 실현이라는 착시 현상으로 누군가는 나무를 베는 칼날이 되고 또 누군가는 그 도끼의 자루가 되었던 시간이었다.

키에르케고르는 현대문화의 위기를 고발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불타는 곡마단의 참상을 알리는 광대에 비유한 적이 있다. 동네 어귀에 자리 잡은 곡마단에 불이 났지만, 이를 알리는 광대의 몸짓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지 못한다. 광대의 몸이 달아오를수록 동네 사람들은 더 재미있어 할 뿐, 불로 인해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곡마단의 실상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동안 예술 활동의 도구화와 비공개로 행해지던 밀실 행정은 예술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벽이었다. 정책 현장에서 실상을 외면하는 무수한 왜곡과 불평등은 개인의 예술적 자유와 상상력을 얼마나 퇴행



문화 예술인들의 창작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지원금은 분배라는 수단으로 오히려 문화·예술·현장을 갈등과 경쟁의 구도로 나누어 놓았다. 그것은 사회가치 실현이라는 착시 현상으로 누군가는 나무를 베는 칼날이 되고 또 누군가는 그 도끼의 자루가 되었던 시간이었다.

시켜왔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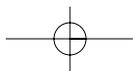
사마천은 말했다. 사람은 한 번 죽게 마련인데, 어떤 것은 태산보다도 무겁고 어떤 것은 기러기 털보다도 가벼우니, 이는 삶의 지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삶의 지향을 아름다움에 두는 것이 문화·예술이다. 행복한 미래에 대한 환타지 '무서운 깊이 없이 아름다운 표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니체(1844~1900)가 바그너에게 보낸 '비극의 탄생' 최초의 서문에서 그리스 예술을 빗대어 한 말이다. 이 말은 문화·예술은 일하는 것, 돈을 버는 것과 같은 노동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삶의 지향성을 생각해 한다.

우리는 일을 마치고 자신의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사는 시간'이라 말한다. 그렇게 '사는 시간'에 문화·예술은 우리를 지키는 신비한 힘을 준다. 그것은 동일한 것을 생산하는 학문처럼 또 하나의 벽돌을 만들어 벽을 쌓는 것이 아닌 종종 사회적 질서나 통념 전체를 뛰어 넘는 '탈주'를 의미한다. 때문에 문화·예술에 관한 제도와 법률은 공정성이나 창의성, 투명성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

아프리카의 어느 밀림 속에는 색깔이 아주 고운 맹독성 독사가 산다고 한다. 이 독사의 독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면 한 번 물렸다 하면 새끼 코끼리 정도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린다고 한다. 그런데 그 색깔이 하도 화려하고 현란하여 최면에 걸린 듯 바라보다가 스스로 그 뱀에게 다가가 물려 죽는 동물들이 많다. 카나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새도 숲 속에서 머리를 쳐들고 있는 그 독사를 한 번 보기만 하면 스스로 그 앞으로 다가가 먹혀 버린다는 것이다. 이처럼 '바라봄'에는 무서운 흡인력이 있다. 지난 시간 검은 명단 안과 밖에서 우리는 무엇을 잘못 보았을까.

이제 "우리가 서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자.

그리고 다가오는 시간들-그 후를 대비하자. ♪



문화특특

CU Again 7만2천 프로젝트

강동완_ 조선대학교 총장



지난해 9월 조선대학교 제16대 총장에 취임했다. 모교 70주년이 되는 해 1만 명 이상의 재학생을 지닌 종합 대학에서 첫 치과대학 출신 총장이라는 영광을 안았지만, 영광과 기쁨은 잠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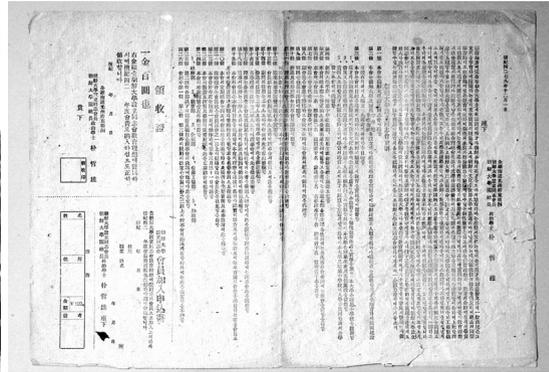
총장에 뜻을 두고 10여 년 동안 학교 운영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은 달랐다. 지난 8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된 데다 2014년에 선제적으로 정원을 10% 감축한 여파가 생각보다 심각했다. 마이너스 예산으로 학교 적립금이 급속도로 잠식되어 재정 위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다.

그동안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또한 큰 규모의 국책사업을 수행하며 나름대로 노하우를 쌓아 왔고, 총장이 되면 하고 싶은 사업도 많았지만, 문제는 예산이었다. 인력과 사업 모든 분야에서 축소와 감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과 구상을 펼칠 여지가 없었다. 그렇다고 현상유지에 안주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었다. 대학도 살리고, 지역사회도 함께 사는 방법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CU Again 7만2천 프로젝트'였다. 우리 조선대학교는 1946년 설립된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민립대학으로 지난 70년의 역사를 안고, 새로운 100년의 도정에 올라 있다. 특히 1946년 대학 설립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백성 7만2천 375명이 모금에 참여하였던 위대한 탄생의 역사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사회에 보은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1948년 목포 무안에서의 모금운동



조선대학교 설립취지문 원본



새로운 7만2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휴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액 발전기금 모금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1,500여 명의 시민과 구성원이 참여하여 26억여 원의 소중한 기금을 기탁하여 주었다.

CU Again 7만2천의 ‘CU’는 Chosun University의 첫 글자이며 ‘7만2천’은 1946년 12월부터 1947년 12월 까지 조선대학교 설립동지회에 가입해 성금을 기부한 7만 2천여 명을 상징화한 것이다.

조선대학교는 해방 직후의 혼란한 상황에서도 민족국가 수립에 기여할 개성 있고 생산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보내준 호남민중의 열망으로 탄생하였고, 지난 70년간 지역민의 성원과 사랑에 힘입어 오늘날 호남 최고의 명문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조선대학교는 그동안 시·도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이 많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깊이 느끼고 있다.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조선대학교가 앞으로 시·도민과 함께, 시·도민을 위한, 시·도민의 대학으로 새롭게 부흥하여 아시아 최고의 대학으로 발전하겠다는 원대한 뜻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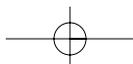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민족의 숙원인 통일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대학이 설립된 당시의 호남 민중의 뜻을 오늘에 되살리고 위대한 설립 역사의 가치를 계승하여 건학 100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을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의료, 스포츠 분야에서 새 시대의 리더로 양성할 것이다. 또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밝은 덕과 인문정신을 기반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스마트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대학르네상스로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아시아 최고의 대학을 만드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이다.

사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기금 운동을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지만,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리기에는 주어진 시간과 상황이 넉넉지 않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해 12월 1일 ‘CU Again 7만2천 프로젝트’의 첫발을 내디뎠다. 새로운 7만2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휴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액 발전기금 모금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1,500여 명의 시민과 구성원이 참여하여 26억여 원의 소중한 기금을 기탁하여 주었다.

조성된 귀한 기금은 광주학연구소 및 지구촌 시민대학을 설립하여 지역민에게 다양한 사회인문학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구촌봉사센터를 설립하여 저개발국가와 지자체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봉사하는 데 쓰인다. 시민문화오케스트라를 창립하고 고령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뇌건강 연구와 교육에 지원하며 청년 문화운동 및 국제화 장학금으로도 지원한다. 시·군·구 지자체와 협업을 추진하고 캠퍼스 갤러리화를 추진하여 지역민에게 휴식과 치유 공간으로 제공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업이다. 그런 점에서 기금 조성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휴먼 네트워크다. 조선대학교를 후원하는 새로운 7만2천명을 생각하면 가슴이 뚫린다.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이 손을 맞잡고 조선대학교 건학 100년과 지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거대한 공동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 조선대학교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GREAT CHOSUN, HUMAN UNIVERSITY’를 통해 아시아 최고 대학 르네상스를 실현할 수 있으려면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역민의 성원이 조선대학교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건학 100년으로 도약하는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



문화특특

새봄을 축하합니다



서연정_시인

거리에 나온 사람들의 입성이 달포와는 다르다. 얇고 야들야들 사랑살랑한 옷을 펼쳐입었다. 잡아당기면 쉽게 손상이 갈 것 같지만 천의 날과 씨는 하늘과 대지처럼 음과 양처럼 서로 단단히 결속하고 있다. 세로로 놓인 실에 가로로 엮여 건너간 실은 튼튼한 교직(交織)의 힘을 보여주는 것 같다. 여기저기서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는 일상은 어찌면 날과 씨의 움직임으로 관계라는 천을 짜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약속 시각을 넘기는 이를 기다리면서 해보는 생각이다. 차량이 막힌다니 조급증을 내보야 무슨 소용이라. 조인 마음의 매듭을 풀어버린다. 새봄을 축하하러 가자고 만나는 벗이 아닌가.

신비한 그림처럼 이름도 그윽한 극락강으로 향한다. 도심에 남은 최후의 독방길만 같은 극락독길은 언제 어느 시각에 와도 좋은 길이다. 아파트촌락을 벗어난 데다 탁 트인 서창뜰을 바라고 서니 절로 해낙낙해진다. 신호등이 없으니 그저 씩씩 지나기 좋다는 듯 질주하는 바퀴들의 굉음을 피해 강변으로 내려간다. 꽃샘바람이 막바지 양탈을 부리며 둔치의 마른 들풀을 흔들어댄다. 혼자 흔들리기엔 억울하다는 듯 들풀은 지나가는 이의 옷자락에 온몸을 마구 부빈다. 검불이 좀 붙으면 어떡랴, 옷자락을 펄럭거리며 강가로 내려간다.

“빛고을산들길”로 자전거 한 무리가 우르르 지나간다. 순간, 승춘보까지 가는 자전거 길이 그렇게나 좋더라며 밝게 웃던 이웃이 떠오른다. 그렇지만 나는 승춘보 하면 가장 먼저, 한 바가지 감태가 건져올려질 것 같은 물빛이 생각나는 것이다. 대상에 대하여 어느 순간의 어떤 인상을 간직하고 있는지는 삶을 바라보는 자세에 영향을 미친다. 고층 건물이 없는 들판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나와 달리 편의점과 운동시설이 딸린 고층 주거 건물에서 살고 싶다는 이들도 많다. 굳이 상대방의 뇌에 자신의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소중한 열정을 소모시킬 필요가 있을까.

활짝 열리는 시야 속으로 길게 펼쳐진 산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봉산정사와 엄이재를 품은 봉황산, 용두동 지석묘를 호위하는 송학산, 김세근 의병장의 포효를 기억하는 백마산, 정상에 서면 광주 사방을 막힘없이 보여주는 금당산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이곳이야말로 우리 고을의 멋진 장소로 손색이 없다 싶어 감탄이 터져 나온다. 봐도봐도 싫증나지 않는 풍경을 파노라마 촬영을 하듯 둘러보는데 멀찍이 선 무

만약 두물머리에서, 극락강은 극락강으로 황룡강은 황룡강으로 흘러온 시간만을 고집한다면, 저의 냄새나 색채만이 진짜이며 상대의 것은 가짜라고 우겨댄다면, 너는 왜 그런 냄새를 풍기느냐고 타박하며 끌고 온 제 겨드랑이 실개천을 추리려고 든다면 어떻게 될까.

등산과 눈길이 마주친다. 동네 산들을 일렬로 앞장세우고 그 작은 산들을 껴안듯 굽어보는 자태에 위(威儀)가 서려 있다. 산들이 창공에 둥그스름하게 그려내는 선에서 아스라하고 소슬한 그리움이 피어오른다.

바람에 몸을 뒤채면서 힐끗힐끗 흰 포말을 일으키는 강은 산책자의 사색을 더욱 부추긴다. 이 강을 따라가면 장성에서부터 흘러 내려온 황룡강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두물머리에서, 극락강은 극락강으로 황룡강은 황룡강으로 흘러온 시간만을 고집한다면, 저의 냄새나 색채만이 진짜이며 상대의 것은 가짜라고 우겨댄다면, 너는 왜 그런 냄새를 풍기느냐고 타박하며 끌고 온 제 겨드랑이 실개천을 추리려고 든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답답한 풍경인데 다행스럽게도 강들은 다른 길을 흘러오면서 쌓아온 것을 모조리 쏟아내고 받아들인다. 그것이 설령 잘생긴 물고기이건 썩은 조개껍데기이건 꽃이건 쓰레기이건 말이다. 새로운 체취를 가지고 달려가는 강이 그래서 멋지고 강들을 받아들이는 바다가 그래서 성소가 되는 것이다.

드디어 봄인데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니다. 어쩌면 아물아물 피어오르는 이미지가 속이려들지도 모르는 봄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 탄핵을 가결한 지난해 12월 9일부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진 올 3월 10일까지 얼마나 치열한 날들이었는가. 신기루가 나타나고 꽃가루가 날아다닐 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기에 무늬가 생겨나고 그려져려한 사연들을 포용하기에 연대가 장한 것임을……. 이 봄이 보통 봄인가, 이성부 시인의 시구처럼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봄이 아니던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심정으로 맞이하지는 말자. ♪



영산강

문화특특

썩썩한 우리시대의 문화를 생각하며

허달용_ 광주민예총 회장



80년 초반 군사 독재시절, 서울 인사동의 한 전시장에서 진보적 미술인들이 모여 “현실과 발언전”이란 현실 비판적 미술전을 개최 하자 정부에서 전시장 담당자에 압박을 넣어 전시장 불을 꺼 버린 적이 있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 광주에서 ‘광주·전남 미술인공동체’ 창립전을 현재 전일 빌딩에 있었던 남봉미술관에서 열었다. 그러나 이후 각 미술관들에서 ‘광·미·공’ 전시대관을 해주지 않자 우린 금남로에서 거리미술전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사연 많은 전시들은 시민들에게 회자되고 많은 관람객들이 관람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런 공권력의 교묘한 탄압 과정을 많이 겪었던 우리들은 두려움 없이 더욱 더 당당하게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요즘 많은 사람들 이 날 보면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을 축하한다고 한다.

그리고 ‘블랙리스트’로 인해 피해 본적이 있느냐라는 똑 같은 질문들을 한다.

‘블랙리스트’란 정부에서 지급하는 예술지원금을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상대 정당에 우호적인 특정예술인들이 받지 못하게 작성한 명단이다. 상당히 자의적이고 조악하기까지 한 어처구니없는 관료주의적 발상의 명단이다. 특정한 집단을 위해 예술이 존재해야 한다는 그들은 예술의 속성을 모르거나 간과 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이 ‘블랙리스트’ 덕에 수 없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문화 예술을 하는 모든 예술가들이 누가 강요해서 예술을 했나? 처음부터 공적자금 지원 받으려고 예술을 시작 했나? 그건 절대 아니다. 예술가들은 자신이 하고 싶어서 예술을 했고, 정신적으로 어렵지만 생활고와 싸우며 자신이 추구한 예술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쳐 왔다.

지원금 제도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팔 길이 원칙을 지켜 지원하여, 힘들고 어려운 예술가들에게 창작의욕을 높이고, 생산된 예술작품을 통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국민들의 정서를 보듬어 주는 장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작년에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 한 때는 산업과 문화로 전 세계를 지배 했던 그곳 가보고 싶어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미술관이나 유명화가의 관련지역을 집중적으로 탐방했다. 고희, 렘브란트, 인상파 화가들 등 예술가의 흔적들은 사소한 것까지 정리되고 진열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 또한 대단하여 과연 유럽은 문화를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구나 생각했다.

이러한 문화선진국들을 보고나니 과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자문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문화행사나 문화정책은 정치적으로 소용되고 진행된다. 그러다 보니 정권이나 단체장이 바뀌면 예전의 정책이



사라지거나 관심 밖으로 빠져버린다. 그 중 광주에서 제일심각하고 지금까지 뒤틀려 있는 사업은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삽질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준공, 그러나 역대 정부들이 과연 광주의 정체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공까지 사업을 진행 해 왔을까 의심스럽다. 그리고 최악의 박근혜 정부에서는 비선실세의 농단 등 아시아 중심도시 사업을 정략적, 사업적으로 바라다보고 본래의 문화 집결지, 생산지로서의 목적을 이미 저버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정치, 경제, 문화의 순으로 문화는 천덕꾸러기가 되어 있는 나라. 아직도 먹고 살기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문화향유는 일부 계층이 누리는 사치라고 생각하며, 거리에 조형물 몇 개 세우고 건물이나 커다랗게 지어 전당이라 이름하고 문화정책을 시행한다는 이 나라. 또한 예술가들을 줄 세우는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지금 광주의 시민사회는 한쪽에서는 대선, 한쪽에서는 도청이 가장 중요한 화두이다.

이번 장미대선에서 유력한 양 쪽 후보에게 광주의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소리가 많다. 그러면 요구 하는 광주의 현안은 뭘까? 자동차 100만대 산업기지 유치? 도청복원?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요즘 대통령후보들이 하는 말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인간에게는 죽음의 혁명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작년 인공지능 알파고 사례에서 봤듯이 4차 산업혁명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디지털혁명이 당연한데 이 혁명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차가운 디지털 혁명.

이렇듯 급변하게 변하는 페러다임 속에서 광주가 먹고 살기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은 뭘까?

내 생각에 광주를 움직이는 주축 동력은 금호, 기아 등 경제 주축 동력과 5·18이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5·18은 광주시민의 피의 결과였고 이 피의 결과가 성숙한 촛불로 성장해 정권을 내리는 계기를 만들고 21세기의 새로운 시민 혁명을 성공했다.

지금 5·18행사를 40주년을 앞두고 있고 의미를 고민해야 할 시점인데, 도청의 복원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광주정신'의 복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민주화의 상징을 이유로 5·18묘역을 참배하고 사진 찍고 마무리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에게 광주는 이미 허상만 남았지만 버리기는 아까운 계륵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광주 내부에서 도청복원 싸움에 보수단체까지 합류하고 교육청, 광주시까지 함께 하고 있다는 건 5·18이 우리 광주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 스스로 자각 하며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앞서 유럽 이야기를 했듯이 그곳은 과거의 유산을 문화자원화 하고 그것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관람 오게 한다.

폴리 사업이나 전당 사업, 그것은 5월을 외피로 이용할 뿐 5월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있다.

나는 물질적, 가시적 현안들 보다 광주정신의 정립과 확산이 먼저라고 생각 한다.

광주의 인문학적 철학을 고민하고 이곳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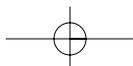
몇 일전 세월호가 안치되어 있는 목포 신항을 다녀왔다.

노란 리본이 날리는 철망 앞에서 보는 세월호의 스러진 선체와 유가족의 눈물에 우리들은 사회적 정의의 정립과 공동체 속에서 우리들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월호의 아픔이 치유되고 진실이 규명되면 눈물의 이 공간이 역사의 교훈을 느낄 수 있는 훌륭한 체험장이 될 거라 생각 했다.

앞으로 진행될 인간성 없는 디지털혁명의 여파를 완화하고 사회의 부조리에 항의하며, 인간의 감성으로 따뜻하게 세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건 '문화' 밖에 없다.

이제는 진정한 '인간중심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할 때이다. ♪



문화특특

지역 인력 대응 설계 지금 하지 않으면

전고필_대인예술시장 총감독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다. 봄의 방아쇠는 당겨져 있어서 변산바람꽃으로부터 동백, 매화, 산수유, 살구꽃, 목련, 진달래, 영산홍 등이 쏟아져서 여름으로 달려간다. 하지만 아직 동토인 곳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 청년 구역이다. 청년이 아닌 내가 청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싫다. 하지만 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면 거기 닿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연대감이 있다. 해서 솔직히 내 마음을 펼친다. 며칠전 오래된 한시를 보다가 남명 조식선생의 시를 마주했다. 번역한 정민교수는 「칭찬」이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결코 칭찬이 아니었다. 그 시 먼저 보자.

“사람들 바른 선비 아끼는 것이 / 범 가죽 좋아함과 비슷하구나 / 살았을 쥔 못 죽여 안달이고 / 죽은 뒤에 비로소 칭찬을 하네.”

천하가 흔들려도 꿈쩍안할 지리산의 선비 남명선생이 바른 선비 하나 키우기 어려운 세태를 탄식하며 쓴 것이다. 성장하는 미래 세대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듯하다. 오늘 내 밥그릇에 손을 대고 영역을 파괴할지 모르니 경계하거나 멀리하는 것도 모자라 무언가의 꼬투리를 잡아 아직 미완인 사람, 잘하긴 한데 어딘가 빈틈이 있어 그 일을 안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흠집내며 통로를 차단하는 것에 길들여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오늘을 관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자의식과 미안함이 오버랩 되는 것이다. 문화도시라 자칭 타칭하는 광주의 오늘 모습은 어떠한가 돌아본다.

광주의 나이는 80년 5월 20대와 30대였던 분들의 나이로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있다. 영원한 청춘의 도시답게 말이다. 그리하여 그 이후 세대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그들이다. 그 사이 다른 지역은 늙어도 한참을 늙어 버렸다. 광주만 아직 60대도 70대도 청춘인 도시다. 고인이 되신 문화기획의 선구자 강준혁 선생님이 10여년 전 내게 던진 말씀은 이리했다.

“광주는 고승이 사는 도시야.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했어도 쉽게 산에서 내려오지 않다가 정말 이리지도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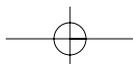


어른, 그야말로 나라의 존망을 좌지우지할 큰어른을 모시고 사는 도시가 바로 광주였는데, 그가 일깨우는 것은 단지 광주사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반이었고, 그의 말씀 한마디가 세상의 질서를 재편하고 주름진 곳을 바르게 폈는데 어느 사이 그런 역할을 다른 지역에 넘겨 버렸다. 더 이상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결연한 이들의 잠입지였고, 성지였던 곳에 끼이는 이들은 정치인들이다.

러지도 못할 때 주장자를 내리치며 일갈을 통해 바른 세상으로 가는 길을 일러주고 홀연히 산속으로 돌아가는 고승”, “한데 이제는 그러지 못해. 고승이 속세에 머물다 보니 속가 사람보다 더 시끄러워졌어” 결국 선생님은 그런 광주에 가는 것이 꺼림칙하다는 말씀을 첨언하셨다. 어른, 그야말로 나라의 존망을 좌지우지할 큰어른을 모시고 사는 도시가 바로 광주였는데, 그가 일깨우는 것은 단지 광주사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반이었고, 그의 말씀 한마디가 세상의 질서를 재편하고 주름진 곳을 바르게 폈는데 어느 사이 그런 역할을 다른 지역에 넘겨 버렸다. 더 이상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결연한 이들의 잠입지였고, 성지였던 곳에 끼이는 이들은 정치인들이다. 그나마 대한민국 최대의 문화시설이라 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들어서서 또 하나의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는 기회가 올려나 기대해 보았지만 이 또한 허당이었다. 준비기간인 십수년 동안 수많은 인걸들이 왔지만 마치 비엔날레가 그랬듯이 광주의 전당은 뜻있는 이들의 기착지가 아니라 경유지였다.

펼치고 싶은 자신의 열망과 경험을 충분하던 충분하지 못하던 저지르고 어느 사이 떠나갔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어찌 되었든 전당이 문을 열고 사람들을 모집하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었다. 직업이 아니라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전당의 문호는 활짝 개방되어 일에 대한 전문성, 지역과 국가와 세계와의 소통과 교류는 호출되지 않았다. 당연히 전당의 업무는 반 지역적, 비전문적, 행정적으로 고착되어 가고, 이 사이를 비집고 정치와 권력에 기댄 사람들은 자리를 차지하거나 사업을 가져가는 관행이 지탱되었다. 그 틈바구니에서 전당을 바라보며 공부하고 현장에서 땀흘리던 지역의 청년들은 과감히 생략되었으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도 지역은 말이없다. 전당에 호통을 칠 사람들이 없고, 심지어는 전당에서 그 호통을 받아야 할 주체조차 보이지 않는다. 무주공산에 묘지 하나만 텅그라니 알박기를 한 것이다. 그것도 광주정신의 고갱이인 옛 도청 자리에.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혹여 문화관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나보다 나 어린 멋진 후배, 멋진 청년들이 호명되고 얘기하도록, 잃어버린 청춘을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준비하다보면 분명 기회는 올 것이다.

전당에서, 비엔날레에서, 문화재단에서, 광주의 문화관에서 역동성 있는 젊은이가 과감하게 광주를 확장하고 세계 안에서 옹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말이다. 제발 죽은 뒤에 칭찬하지 말고, 광주가 곱게 늙어갔으면 좋겠고, 젊은 세대가 오그라들지 않고 기세등등한 날이 하루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다. ♪





재단소식



[재단소식]

• 사업

광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구축 및 홈페이지 구축한다

- 2017년도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구축사업 공모 선정
우리 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광주지역 역사문화자원 1,000개를 DB화 하고, 웹툰을 제작하는 '2017년도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구축사업'을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다. 이 사업은 광주지역 역사문화자원을 발굴, 조사, DB화에 기초하여 '광주 역사문화자원 백과사전'과 50종의 웹툰을 담은 '광주 역사문화자원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2016년도에 제작된 광주역사문화지도와 『광주 역사문화 자원 100』(상·하권)등 관련 콘텐츠도 탑재할 예정이다.

연구책임을 맡은 김덕진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장(광주교육대 교수)은 “작년의 기초자료 조사를 기반으로 올해에는 시민들과 함께 살아있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광주 역사문화자원의 보고로 홈페이지를 구축할 것”이라며 “광주 역사문화의 정수를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구심을 마련하는 것이자 역사문화교육 및 관광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제7기 역사문화시민대학 개강

- “불로 보는 역사문화, 그리고 한국인의 화(火)” 주제



제7기 역사문화시민대학이 3월 29일(수) 오후 2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에서 개강식을 갖고 5주에 걸친 대장정에 들어갔다.

이날 강의에 앞서

백수인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강좌를 통해 한국인의 마음 속의 불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가고, 개인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의 집단적인 불이 갖는 창조적인 역동성을 바로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에 대한 관심과 후원 등도 잊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첫강좌에 나선 오수성 센터장은 ‘화, 화병, 그리고 트라우

마’를 주제로 열정적인 강연을 통해 ‘화’는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심리현상으로 중요한 것은 ‘화를 다루는 방식’의 문제임을 밝히고, 다양한 임상심리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전개했다. 특히 트라우마와 관련해 ‘외상 후 스트레스’에서 ‘외상 후 성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일정은 •제2강좌 4월 5일 오후 2시, ‘불을 찾아서’(박영만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수사) •제3강좌 4월 12일 오후 2시, ‘불과 민속신앙’(엄수경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 •제4강좌 4월 19일 오후 2시, ‘촛불과 광장민주주의 그리고 권력’(박해광 전남대 교수)로 진행되며, 강좌 이후 4월 26일에는 구형왕릉, 동의보감촌, 남사에담촌, 남명 유적지 등 경남 산청으로 떠나는 인문학여행도 병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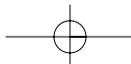
재단 4차 정기임원회의 개최



재단 4차 정기 임원회의가 지난 4월 10일(월) 10여 명의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 만남의 날 개최, 지역문화현안 대응, 재단 규정 개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회원 만남의 날은 6월 10일(토)로 정하고 기타 행사 내용과 프로그램 등은 진흥이사회에 위임토록 하였다. 대선 관련 대응은 지역시민문화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되 시기와 방식은 사무처에 위임, 지역문화포럼은 대선 의제의 실천 방안을 중심으로 광주문도협에 제안하고, 임원회의 논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단 정책위와 사무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재단 3차 정기임원회의 개최

재단 3차 정기 임원회의가 지난 3월 6일(월) 10여 명의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2017년 1차 정기 이사회 위임사항과 임원 불나들이 개최를 중심으로 논의한 이날 모임에서는, 임원 불나들이 오는 3월 25일(화) 화순 소소미술관과 그 인근 유적지 탐방





+++++
 +++++
 +++++
 +++++
 +++++

재단소식



을 하는것으로 결정하고 가능한 신규 임원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하였다.

한편, 지난 1차 정기 이사회의 의결된 위임사항 토대로 사무처에서 마련한 재단 규정 개정안은 승인하되 차기 임원회에서 개정전 후 비교표를 통해 최종 점검키로 하였다.

호남의병 기념사업 연구용역 순항 중

- 지난 2월 16일 중간보고회 열려

호남의병 기념사업 연구용역이 일정 대로 순항 중



호남의병 기념사업 연구용역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사업 중간 보고회가 지난 2월 16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 5층 문화체육관광실 회의실에서 최윤구 문화예술진흥과장과 고영진 교수를 비롯한 4명의 호남의병 기념사업 T/F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우리 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이번 연구용역 사업은 광주시로 부터 발주받아 •임진왜란, 한말 호남의병 실태조사 및 n 유적 유물 조사를 통한 호남의병 선양사업 DB 구축 •타 지자체 의병선양 사업의 사례 조사 및 평가 •호남의병 선양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방안 도출 •호남의병 정신을 활용한 청소년 역사교육 및 인성, 예술교육콘텐츠 구축 방안 제시 •호남 인문정신을 바탕으로 한

문화관광콘텐츠 구축 등을 목표로 오는 5월에 최종보고회를 갖고 6월7일까지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중간보고회에 앞서 지난 2월 7일 오후 2시 재단사무실에서 김갑제(광복회 광주전남연합 지부장), 박민아(광주시교육청 혁신교육과 장학사), 박준수(광주매일신문 상무이사), 안태기(광주대 교수), 정성구(도시문화집단CS 대표)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자문회의가 열렸다.

• 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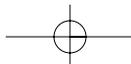
서석초 보행전용도로 지키기 시민모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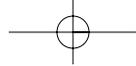
- 서석초 보행전용도로 존치키로 뜻 모아



3월 17일(금) 아시아문화전당 회의실에서 시민모임과 아시아문화전당, 광주시는 간담회를 갖고, 서석초등학교 앞 보행전용도로를 존치키로 뜻을 모았다.

교통전문가들과 함께 참여한 간담회에서는 서석초 정문앞으로 계획한 아시아문화전당 부설 주차장(옛 광주여고 부지)의 부출입구의 변경과 함께 기존 보행전용도로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의견





재단소식



을 모으고, 이후에는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주차장 계획 변경서를 광주시에 제출하고, 최종 심의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시민모임은 우리 재단을 비롯하여 시민단체, 지역주민, 서석초 학부모 등이 참여한 네트워크 단체로 지난해 12월부터 주민서명운동과 토론회 등을 통해 주차장 부출입구의 위치 변경과 보행전용도로 존치를 요구하며 문화전당과 광주시 담당국장 면담을 통해 뜻을 전달하는 등 보행전용도로로 존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 조직

재단 임원 봄 나들이 열려



재단 임원 봄 나들이가 지난 3월 25일(토) 25명의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화순 일원에서 열렸다. 소소미술관, 조광조유배지, 영벽정 등을 둘러본 이날 모임은 올해 초 재단 조직 개편이 마무리됨에 따라 신규 임원 환영과 문화번개팅을 겸해 열린 행사로 풍성한 먹거리에 풍광도 만점인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 * 소소미술관 장소 협찬의 김봉석 위원님, 맛갈진 해설로 감동을 전해주시신 서순복 이사님, 달콤한 술 협찬으로 흥을 돋아주시신 김정희 부이사장님, 후원금 협찬으로 풍성한 모임이 되도록 지원해주신 김성 회장님을 비롯하여 참석하신 모든 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 특히 김봉석, 조재용, 김성수 신임 임원님과 멋진 분들이 재단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가교해주신 안태기 위원장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7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및 각 기구 연석회의개최



2017년 1차 정기이사회 및 각 기구 연석회의가 지난 2월 23일(월) 오후 6시 30분 재단 회의실에서 25명의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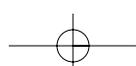
전체 임원 연석회의도 병행한 이날 모임에서는 2016년 감사결과 보고, 신규 임원 추천 및 임원 보직 변경, 2017년 사업 및 추경, 재단 규정 개정안을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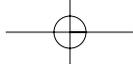
감사에서 지적한 퇴직금 중간 정산 문제, 직원 퇴직연금 가입 등은 후속 조치를 추진키로 하고, 재단 규정은 기본 방향의 동의하에 정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개정은 임원회의에 위임키로 하였으며 기타 안건은 사무처의 제안대로 의결하였다.

한편, 오는 3월 25일(토)에 신규 임원 환영과 임원 소통과 교류를 위한 전체 임원 봄 나들이를 개최키로 하였다.

문화담론지 『창』 38호 편집회의

지난 2월 21일(화) 오후 3시에 재단 문화담론지 『창』 1차 편집회의가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올해 새롭게 구성된 편집위원회는 김정희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박신영, 김향득, 서연정 님이 참여하였다.





+++++
 +++++
 +++++
 +++++
 +++++

재단·회원소식



이날 회의에서는 『창』 38호 발간 관련 특집기획 및 기타 내용을 논의했다.

[회원소식]

김향득 운영위원

다섯 번째 개인전 'again 518-0416' 을 개최

광주의 '5월'을 찍는 사진가 김향득 작가가 다섯 번째 개인전 'again 518-0416'을 개최한다. 김 작가가 찍는 5월은 광주의 아픔이자 민주화의 발로인 5·18을 상징하며, 그동안 작가는 그 흔적을 따라 발로 뛰며 현장을 담아왔다. 스스로가 5·18에 참여한 산증인으로서 파편화 된 5월의 상흔들을 세월의 변화 앞에 차곡 차곡 쌓아온 것이다.

2013년부터 매년 개인전을 열고 있는 김 작가는 (사)무등산풍경소리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전시에서 옛 전남도청을 배경으로 기록해 온 사진들을 풀어놓을 예정이다.

작가가 십수 년 간 찍어온 도청 사진 20점은 작은 크기로 모아서 한 작품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도청 주변에서 벌어진 시민사회의 활동들도 작품으로 전시된다. 특히 세월호 참사 300일을 맞아 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된 추모행사는 오월 광주를 잇는 시대의 아픔을 대변하게 된다.

- <광주드림> 발취



김명술 회원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하다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제3대 회장으로 김명술 회장이 취임했다.

김 회장은 3월 23일 오후 광주 서구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전남벤처포럼 및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취임식에서 "4차 산업혁명과 국내·외 트렌드 변화에 따른 기업인들의 마인드 강화와 지역 벤처기업들의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전



략모색에 힘쓰고 벤처기업인들 및 동종업계,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김 회장은 "벤처협회의 황대영 초대 회장과 박철희 전임 회장이 이룩해 온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의 기반을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회원 확충과 회원간 교류와 소통을 강화해 협회를 활성화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광주매일신문> 발취

윤현석 운영위원

광주 세계청년축제 총감독으로 선임

윤현석(37) (주)컬처네트워크 대표가 광주시가 주최하는 '2017 세계청년축제' 총감독으로 선임됐다. 윤 대표는 이달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총감독직을 수행하게 된다.

'2017 세계청년축제'는 '청년은 한다(Youth Do It!)'를 주제로 오는 7월 28일부터 3일간 5·18민주광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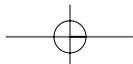
새로운 일을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청년기업, 청년활동가, 청년기획자들을 한자리에 만나는 '청춘 스타트업 페스티벌'과 평소 만나보고 싶었던 '청년멘토'를 만나 밤을 지새우며 이야기하는 '미드나잇 청년포럼'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총감독 모집 방식을 공모 형태로 추진했고, 총감독 지원자들이 제출한 제안서 평가도 청년위원으로 구성된 '청중단'이 참여해 질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개평가로 진행했다.

- <광주일보> 발취

이명란 회원, 다섯 번째 시집

『오색찬가 어머니』(한림출판사)를 출간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명란 시인이 자신의 다섯 번째 시집 『오색찬가 어머니』(한림출판사)를 출간했다.





회원소식



지난 2015년 5월 네 번째 시집에 이어 2년여 만에 선보이는 것으로 모두 120여편의 시가 담겨있다. 이 시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자녀에게 젖을 물리는 어머니의 모습이다”면서 “희생과 눈물이 있어 세상을 아우르는 어머니의 깊고 넓은 사랑을 그린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 시인은 현재 광주여성재단 사회복지분과 이사를 맡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와 웃음치료사, 가족상담사, 회고록 자서전 스토리텔링 전문강사로 활동 중이다.

- <여성신문> 발췌

박선정 운영위원장 문화칼럼집 『문화도시, 그 풍경과 속살』 출간

문화도시 광주의 허상과 실상을 담은 칼럼집이 나왔다. 『문화도시, 그 풍경과 속살』이라는 책이다. 저자는 광주시 남구관광청을 맡고 있는 박선정 단장이다. 이 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저자가 지역 일간지와 월간지 등 여러 언론매체에 써온 글을 도서출판 심미안에서 묶어서 펴냈다.

현재도 저자는 지역의 문화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남구관광청 단장뿐 아니라 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코디네이터, 지역문화교류재단 운영위원장, 클래식패밀리 사무총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박선정 문화칼럼집 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가 지난 3월 7일 오후6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구 카톨릭센터) 7층 강당에서 열렸다.

- <무등일보> 발췌

양혜령 재단이사 동구치과의사회회장 3년 연임

양혜령 광주시 동구치과의사회 회장이 최근 금수장호텔에서 열린 제 27차 정기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2014년 2월 만장일치로 여성 최초 동구 치과의사회 회장에 취임한 양 회장은 임기 3년간 다시 치과의사회를 이끌게 됐다.

양 회장은 “그동안 동구치과의사회



가 자치단체 등의 지원 없이도 회원들의 순수한 재능 기부로 많은 봉사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회원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 회장은 전남대 치과대학 치의학과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구 계림동에서 30여년 동안 ‘양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 <광주매일신문> 발췌

박흥근 운영위원 (주)포유건축사사무소 박흥근 대표 광주·전남건축가회장 선출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는 최근 201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주)포유건축사사무소 박흥근(사진) 건축사를 임기 2년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박 신임 회장은 현재 광주일본은펜칼럼리스트, 아시아문화도시조성지원포럼 위원, 전남도교육청 재정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지역문

화교류호남재단과 나무심는건축인 등 시민단체에서 도시·건축 전문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칼럼집 『나 하나 물들어』를 출간해 공공건축과 도시, 도시정책과 문화행정, 아시아문화전당과 재생 등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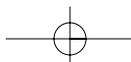
광주·전남지역 건축사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학회는 건축문화운동, 건축학교, 건축투어, 건축관련 포럼 등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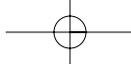
- <광주일보> 발췌

강동완 재단 전 후원회장, 조선대총장 'CU Again 7만2천 프로젝트'를 추진

정유년 새해 벽두에 지난해를 돌아보면 조선대에 뜻 깊은 해였다. 국내 최초의 민립대학 조선대가 2016년 건학 70주년을 맞아 호흡을 가다듬었다면 2017년은 건학 100주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는 해다. 때마침 지난해 9월 조선대 수장으로 취임한 강동완 총장은 'CU Again 7만2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민립대학 조선대 설립 당시 설립 동지회원인 7만2000여명을 상징화해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이자 조선대 후원자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강동완 총장은 최근 조선대 총장실에서 진행된 본지와와의 취임기





+++++
+++++
+++++
+++++
+++++

회원소식



님 인터뷰에서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성의 등불이 됐다”고 평가했다.

- <한국대학신문> 발췌

허달용 회원

광주민예총 신임 회장 취임

(사)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하 광주민예총) 신임 회장에 허달용 전 광주민족미술인협회회장이 취임했다.

광주민예총은 1월 18일 오후 광주 동구 동명동 민들레 소극장에서 ‘2017 정기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허씨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다. 임기는 2년이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두차례 광주민예총 회장직을 역임한 허 회장은 “예전 경험을 살려 각 소속단체가 함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광주민예총을 만들기 위해 성심성의껏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남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한 허 회장은 매화 등 한국화 작품을 작업하고 있다. 최근 광주 민미협 회장으로서 지난 12월 세월호 시국전시를 공동 개최하고, 고(故)백남기 농민 추모 작품을 유족에게 전달하는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 <광주일보> 발췌

서순복 재단이사

전국대학언론사주간교수협의회 부회장에 선임

서순복 조대신문사 주간이 전국대학언론사주간교수협의회 부회장에 선임됐다.

전국대학신문주간교수협의회는 4년제 대학 학보사 주간 교수들의 모임으로 현재 30여 개 대학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서순복 교수는 서울대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06년부터 조선대에 재직하면서 문화법정책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대신문사 주간, 법학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행정학회

회장, 한국문화정책학회 부회장, 광주 문화도시협의회 공동대표, 한국 지방정부학회 부회장, 한국문화관광 해설사회 회장 및 전남문화유산해설사회 회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자문위원, 국무조정실 정보화평가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 <국제신문>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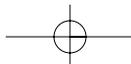


재단 가족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안태기(광주대 교수) 시민문화교류위원장, 일본 오키나와 국제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 수상
- 김덕진(광주교육대 교수)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장, 전남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위촉
- 서순복(조선대 교수) 이사, 대학언론사 교수협의회 부회장 선임
- 정병수(남부대 교수) 이사, 딸 정유진 양 결혼
- 김상집(5·18공법단체추진위원회 공동대표) 후원이사, 장남 김유백 결혼

신규회원 “환영합니다”

- 곽상희(광주시 공무원)
- 김기곤(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김대현(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김명술(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회장)
- 김영광(광주시 공무원)
- 김재철(광주시 참여혁신단장)
- 김혜영((사)광주관광발전연구소 이사장)
- 박광석(전 광주시 문화예술진흥과장)
- 신장용(광주기독병원)
- 안태기(광주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 유방실(광주시 공무원)
- 이유중(광주시 공무원)
- 전영원(동구 시의원)
- 정성국(정성국치과의원 의사)
- 조오섭(광주시의회 의원)
- 최광희(전 동구문화센터장)





함께하는 사람들



[재단법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임원현황]

이사회

<이사장>

백수인 조선대 국어교육과 교수

<부이사장>

김 성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김정희 광주시 서구문화원 사무국장
정광민 건축사사무소 서로 대표
정현애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

<상임이사>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이 사>

강동완 조선대 총장
김대현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덕진 광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김영주 (주)광주전남ICT협회 회장
김하림 조선대 중국어과 교수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박선정 광주대 겸임교수, 남구관광청장
박요주 세무사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선현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송진희 호남대 예술대학장
양형렬 전 국제로타리 총재
양해령 치과 의사
오견규 화가
윤만식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이민원 광주대 세무경영학과 교수
이승권 조선대 프랑스어과 교수
이연수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철우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차일현 세무사

<감 사>

천형욱 변호사
오경희 세무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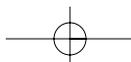
박선정 광주대 겸임교수, 남구관광청장

<정책위원회>

위원장 박선정 광주대 겸임교수, 남구관광청장
위 원 강성욱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조직국장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혜영 (사)광주관광발전연구소 이사장
송진희 호남대 예술대학장
이동순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정성구 (주)도시문화집단CS 대표
한 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역문화콘텐츠위원회>

위원장 류영국 지오게이트 대표
위 원 민인철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홍근 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위주영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전임연구위원
이향준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연구원





+++++
+++++
+++++
+++++
+++++

함께하는 사람들

〈시민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	안태기	광주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위 원	강혜경	광산구 문화콘텐츠 전문위원
	김봉석	광주대 산업기술경영학부 교수
	김성수	SDC Korea 대표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썩 대표
	김향득	사진작가
	박신영	소설가
	윤현석	(주)컬처네트워크 대표
	조재용	비콘컴퍼니 대표
주 흥	홍	화가,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진시영	진시영	미디어아트 작가

재단사무처

이기훈	상임이사
김민정	사업팀장
이지은	총무간사

재단부설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김덕진	소장
김원중	연구실장
위주영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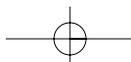
지역문화진흥회

〈회장〉

김 성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이사〉

고영주	부성포장 이사
김경옥	약사
김상집	5·18공법단체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김성환	(주)마실코리아 대표이사
김옥렬	다큐디자인 대표
김용혁	(주)HOI 대표이사
오형근	일곡양지요양병원 대표원장
이대성	(주)웹매직 대표
이성일	전 호남매일신문 사장
정병수	남부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최형주	(사)5·18구속부상자회 이사, 목포지회장
한 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황재익	(주)BioOrigin 대표이사





편집후기

"모처럼/ 지는 꽃 손에 받아/ 사방을 둘러본다// 지척엔/ 아무리 봐도/ 놓아줄 손이 없어//
그 문전/ 닿기도 전에/ 이 꽃잎 다 시들겠다"

날리는 꽃잎을 보며 초정 김상옥 시인의 「그 門前」을 떠올린다.
누군가의 마음에 채 닿기도 전에 다 시들어 버릴 것 같은 꽃잎...

장미 대신의 현장을 바라보며 누군가의 실수로 혹시 촛불이 꽃잎처럼
시들지 않을까 잠깐 난감해 하며 안절부절 한다. 그렇게 멀리 느껴지던 어느 날이 현실이 된
지금, 공존 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호 『창』 특집기획은 '문화도시 광주 차기 정부 과제' 를 주제로 지혜를 모아 보았다.
내일의 광주를 위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소금' 이 될 지 '설탕' 이 될 지 알 수 없지만 기대해
보자.

이번호에도 어김없이 좋은 글 주신 고마운 분들께 깊이 고개 숙여 감사한다.

